

1910년대 초, 재러한인매체를 통해 본 민족주의의 계승과 굴절*

— 『대한인정교보』와 『권업신문』을 중심으로

金裕東**

- | | |
|--------------------------|------------------|
| I. 1900년대의 계승, 민족의 (재)발견 | IV. 동정의 구심력과 원심력 |
| II. 영웅담론의 진화와 직분론의 유혹 | V. 신세계에 대한 염원 |
| III. 인성진화론: 종교의 민족적 전유 |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1910년대 초, 재러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권업신문』과 『대한인정교보』의 기사를 분석함으로써 1900년대의 민족주의가 계승되고 굴절된 면모를 확인하고자 했다. 개인을 민족/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원자로 호명한다는 점에서 재러한인사회의 민족주의는 분명 1900년대식 열혈주의를 계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망을 기점으로 효력을 급속히 상실한 실력양성론과는 다른 자리에서 민족주의의 ‘진화’가 요청되었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재러한인매체는 완전한 ‘준비’ 없이도 독립을 꿈꿀 수 있다는 ‘정신주의’의 길을 제시했다. ‘실력’ 대신 ‘정신’의 잠재력에 방점을 두는 사유와 감성은 크게 세 가지 담론-영웅 담론, 인성진화론, 동정 담론-을 통해 드러났다. 이것들은 문명의 위계와 약육강식의 논리를 회의하고 새로운 대안적 세계관을 모색하는 반진화론적인 사유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간 『권업』과 『정교보』는 강한 민족의식을 표출한 항일언론으로 설명되었으나 매

* 이 연구는 BK21 플러스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체에 내포된 다기한 성격은 별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 논문은 국망에도 불구하고 열렬한 구국운동이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와 그 양상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더불어 단순히 민족주의의 심화로 환언할 수 없는 민족의식의 균열의 지점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재러한인의 ‘실존’을 다루는 고려인 연구의 초석을 놓는 작업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주제어 : 1910년, 민족주의, 『권업신문』, 『대한인정교보』, (사회)진화론, 정신주의, 영웅담론, 이성진화, 동정

I. 1900년대의 계승, 민족의 (재)발견

3·1운동 이전, 한반도를 살아가는 존재들은 “불안하고 평온한 일상”¹⁾을 보내고 있었다. 많은 청년들은 헌병보조원 또는 교원이 되려는 소박한 ‘꿈’을 가슴에 품고 ‘순량한 신민’이 되어갔고 민중들은 빼앗긴 토지와 폭등하는 물가에 번번이 분노했지만 식민 권력 자체에 대항하는 운동을 기획하진 못했다.²⁾ 이 같은 사실은 ‘합병’을 전후해 ‘남한대토벌작전’을 실시하고 105인 사건을 날조하며 항일의 싹을 발본색원하고자 했던 일제의 통치술이 나름의 효과를 거둔 것이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3·1 이전의 침묵’을 정설로 받아들이더라도 한편으로 한반도 외부의 상황은 사뭇 달랐다는 사실 또한 종종 잊히고 마는 주지의 사실이다.

1910년대 초 해외 독립운동의 중심지로 부상한 러시아³⁾에는 독립운동가의 상당수가 망명해 있었고, 이들은 자신들보다 먼저 정착해있던 동포들의 조력을 받아 독립군을 양성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신문과 잡지를 펴내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이곳에 살고 있던 일반 한인들은 국경을 오고 가는 동포들로부터 일제의 만행과 의병의 활약상을 전해 들었고 전보와 신문 등을 통해 폭증하는 해외 도처의 ‘혁명’(신해혁명, 발칸의 독립운동, 인도·대만의 독립투쟁, 멕시코혁명 등) 소식을 접하면서 민족문제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國亡과 더불어 민족운동의 열기가 가라앉았던 국내의 상황과 비교하면 러시아의 상황은 큰 대조를 이루었던 것이다. 요컨대 재러한인들에게 1910년대는 민족운동이 침체하는 시기가 아니라 공간을 바꿔서 지속·굴절하는 시기였다.⁴⁾

1) 권보드래, 『1910년대, 풍문의 시대를 읽다』, 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13면.

2) 앞의 책, 14~16·47~48면 참조.

3) “연해주는 1910년 전후로부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무렵까지 해외독립운동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윤병석, 『국의 항일운동 I-만주·러시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08면). 물론 세계대전 동안에 운동이 단절된 국면이 없지 않으나, 러시아혁명 이후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민족해방을 이루고자 했던” 운동가들의 노력을 포함시킨다면 시기는 1920년대 초까지 연장될 수 있다(윤상원, 「1920년대 초반 러시아의 한인사회주의자들과 코민테른 김만겸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16, 역사학연구소, 2006, 8면).

4) 그러나 국경을 기준으로 항일·민족의식의 정도에 선명한 차이가 있었음을 강조하는 것 또한 표면화되지 않은 저항들은 과소평가하며 다면적인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위험이 있다. ‘형식상 국가가 소멸했어도 한반도 내에서는 크고 작은 의병전이 이어졌고 교육·실업·노동·학생은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일제에 대한 반감보다는 생계의 급박한 요구 때문에 이주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독립운동을 대중화하려는 망명지사는 이들의 민족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 변화된 현실의 조건을 고려해 설득(계몽)의 방법을 정돈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 변화된 조건은 ‘국망’과 ‘국경 밖의 삶’이라는 두 차원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국망’은 주지하듯 한일병합조약으로 인해 대한제국이 주권을 상실해버린 일을 가리키며 이는 적지 않은 재러한인의 의식 속에 돌아가야 할 근원으로서 ‘국가’라는 이념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설령 그렇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빈자리를 ‘사회’와 ‘민족’이 대신하기 시작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국망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었다. 특히 개항 이래 한인의 정신구조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회진화론⁵⁾에 입각해서 볼 때, 이제 조선의 독립은 불가능에 가까웠다.⁶⁾ 국망 이전, 진화의 가능성을 믿음으로써 부국강병의 꿈을 잃지 않았던 지식인들은 이제 국망을 진화의 불가능을 상징하는 결산표로 인식하게 되면서 운동의 동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⁷⁾

동 등 다방면에서 독립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민족운동은 그치지 않았다. 식민지 조선인들은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로 인해 직접적인 저항을 실행하기 어려웠던 것이지 그럴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 5) 이하 본고에 등장하는 ‘진화론’이란 용어는 다윈에 의해 주창된 생물학적 진화론이 아닌, 스펜서 등에 의해 ‘오도된’ 사회진화론을 가리킨다. 모든 개념어가 그러하듯이 (사회)진화론 또한 그 의미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개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특수한 의미로 변형·확장될 수 있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진화론을 1900년대부터 1910년대 초까지 조선과 한인사회에 하나의 통념으로 안착해가고 있던 사유체계-생존경쟁을 통해 인류가 진화한다는 믿음을 고수하며 힘에 의한 위계와 세계의 분할을 정당화하는 논리·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反/半진화론적인 것’은 그러한 진화론을 주체가 비판하거나 전유하는 담론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엇으로 개념화할 것이다. 이는 어떤 고정된 실체를 가리키기보다는 새로운 담론의 일면을 환기하는 형용사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 6) 1880년대 ‘개화기’ 즈음부터 조선에 수용된 사회진화론은 1910년 국권상실을 기점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1920년대까지 그 담론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사회진화론에 대응한 지식인/담론장의 모습을 펼쳐낸 연구들을 발표 시기순으로 나열하면 권보드래, 「진화론의 갱생, 인류의 탄생-1910년대의 인식론적 전환과 3·1 운동」, 『대동문화연구』 6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9; 이인화, 「1910년 이후 한말 사회진화론의 변용과 극복 양상-안중근, 박은식, 안창호, 신채호의 사상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74, 한국동서철학회, 2014; 유봉희, 「1910년대 한국근대소설이 보여준 사회진화론과 근대 극복의지의 한 양상, 양건식의 사상과 문화세계(1)」, 『한국학 연구』 42,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6; 이만영, 「한국 초기 근대소설과 진화론-1910~1920년대 초 ‘진화’ 개념의 전유 양상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8.
- 7) 진화론은 이제 지식인들이 “망국의 상황을 수긍케하는 자기비하의 기제”가 되거나, 운동의 구심점

한편 국경 밖의 유민들은 자신과 인종·문화·역사적으로 이질적인 집단과 맞붙어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 같은 외부세계와의 만남은 민족주의의 심화와 해체라는 상반된 결론의 가능성을 모두 내포했다. 우선, 낯선 환경에 홀몸 혹은 一家 단위로 이주한 한인이 쉽게 동질감을 느낄 대상은 아무래도 ‘동포’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越境은 분명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었다.

내가 집에 있어서는 우리 형님 우리 아우라 하는 말을 들었으며 향당에 나가서는 우리 김가 우리 박가라 하는 말을 들었을 뿐이오. 이밖에 친추만대로 우리 단군할아버지를 한가지로 이고 내려오는 동족의 정신을 조기 표장할만한 넓은 말을 듣지 못하였더니 바다를 건너와 외국에 노는 동포를 본즉 앞거리에 머리 검은 사람만 지나가면 문득 가라대 저게 가는 이가 우리사람이 아닌가 하며 뒷집에서 여보오 하는 말소리만 들리면 반드시 이르되 저 집에 우리사람이 왔구나 하여⁸⁾

조선이라는 “집”에 있을 때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가족·혈족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었으나, “바다를 건너와” “외지”에 있게 되자 비로소 민족을 “우리사람”으로 실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외지”의 삶이 민족적 결속을 약화하며 한인들을 개체화시키거나 이들을 민족이 아닌 다른 정체성에 포획되도록 하기도 했다. 일례로, 정순만 피살 사건⁹⁾이 보여주듯 독립운동의 수뇌부는 운동의 방략을 두고 북파, 서도파, 기호파로 심하게 분열돼 있었다. 나아가 일반 한인들 간에도 계급·언어적 차이가 민족적 통합을 방해하며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있었다.¹⁰⁾

을 잃어버린 개아(個我)들이 한반도에서 ‘얼마 안 되는 밥그릇’을 두고 아귀다툼하는 근거로 작동한다. 권보드래, 『3월 1일의 밤』, 돌베개, 2019, 199~202면 참조.

8) 「논설(論說)-俄領에 있는 韓人은 정교로 統一함이 必要함」, 『대한인정교보』 5, 1912.8.1. 본고에 인용된 『대한인정교보』와 『권업신문』의 기사들은 모두 영인본 『勸業新聞 대한인정교보 靑邱新報 韓人新報. 제1권』(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5)을 참고한 것이다. 인용문들은 원문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대어 표기법에 맞게 일부 수정한 것이며 인용문 중 진한 표시의 강조는 모두 인용자의 것이다.

9) 정순만 피살사건의 정황과 결과에 대해서는 박결순, 「沿海州 韓人社會의 갈등과 鄭淳萬의 피살」,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9 참조.

10) 일찍이 러시아에 귀화하여 ‘몹표’(시민권)를 획득하고 토지를 소유한 원호(元戶)와 그렇지 못한 여호(餘戶) 사이에는 상당한 경제적 격차가 있었고 이는 양자의 교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민족주의자들은 국권의 상실과 국경 밖의 삶이 야기한 변화를 고려해 민족의 구심력을 보존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담론을 세공해야만 했다. 따라서 이들이 세공한 ‘진화된’ 담론 속에는 1900년대를 계승하면서도 이와 변별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한편 민족주의자들이 민족 담론을 전파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수단은 신문과 잡지 라는 매체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 재러한인사회를 대변했던 양대 항일언론은 『권업신문』(1912.5.5~1914.8.29)과 『대한인정교보』¹¹⁾(1912.1.2~1914.6.1)였는데, 검열 혹은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두 매체가 1912년부터 1914년 여름까지 2년이 넘게 발행을 포기하지 않은 점은 필진들의 열정은 물론 매체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호응을 짐작케 한다.

본 논문에 앞서, 뜨거운 민족 담론이 펼쳐진 場으로서 『권업』과 『정교보』의 내용과 성격을 분석한 논자로는 박환, 최기영, 윤병석, 최주한, 김주현, 송명진, 민병진 등¹²⁾

됐다. 여호는 원호보다 수가 2~3배에 달했으나 원호와 달리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고 생계를 위해 머슴살이, 막노동, 소작 등을 해야 했으며 노동의 기회를 얻는 데서도 차별을 받았다고 한다(윤병석, 앞의 책, 175~176면 참조). 몸표의 유무가 한인을 돌로 나누었듯이, 노어의 구사능력도 한인들을 위계화했다. ‘여호-망명지사’들이 주축이 된 민족 담론은 노어를 배우려는 한인을, 한글도 제대로 못 읽는 형편에 외국어를 배워 제 잇속을 챙기려는 ‘기회주의자’로 매도(「논설-외국말 배우는 이에게 고함」, 『권업신문』 27, 1912.10.27)하면서도, 한편으로 유창한 노어로 러인과의 갈등을 해결해준 한인을 상찬(「잡보-착한 일하면 복받음」, 『권업』, 94, 1914.1.18)하는가하면, 한 한인 학생이 노어로 쓴 편지에서 문법에 어긋난 표현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다(「잡보-열심히 공부한 결과」, 『정교보』 9, 1914.3). 이 같은 외국어에 대한 질서와 선망은 한인사회에서 노어가 벌써 하나의 권력으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11) “노령에서의 민족운동은 연해주와 시베리아 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勸業新聞』과 『대한인정교보』는 1910년대 전반기에, 바로 그 두 지방을 대표하는 민족언론이었다.”(최기영, 「『勸業新聞』 『대한인정교보』 『靑邱新報』 『韓人新報』 해제」, 『勸業新聞 대한인정교보 靑邱新報 韓人新報』 제1권, 1면) 권업회의 기관지였던 『권업신문』은 극동총독 곤다씨의 호의와 협조 속에 연해주 해삼위에서 총 126호를 발행했으며 신채호, 이상설, 김하구, 장도빈 등을 주필로 기용했다. 한편 국민회 시베리아 지방총회의 기관지였던 『대한인정교보』는 이강과 이광수가 주필을 맡으며 밖으로는 미주의 안창호와 연락하고, 안으로는 부주교 에프렘을 통해 정교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총 11호를 찍어냈다.
- 12) 최기영, 『식민지기 민족지성과 문화운동』, 한울아카데미, 2003, 149~162면; 김주현, 「『중국어명사략』 저자 규명 및 창작 의의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7; 박환, 『러시아지역 한인언론과 민족운동』, 경인문화사, 2008, 137~219면; 윤병석, 앞의 책, 165~186·243~265면; 송명진, 「역사·전기소설과 디아스포라」, 『비교한국학』 19(3),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 최주한, 「이광수와 『대한인정교보』 9, 10, 11호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86,

이 있다. 이들의 연구는 관련 자료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매체의 제반 사항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매체와 함께 재러한인단체와 한인사회의 성격을 규명하며, 다양한 후속 논의를 예비해 놓았다는 점에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가 대상 매체에서 격렬한 항일 논조와 치열한 민족의식을 감지하면서도 그 사실의 ‘확인’에서 더 나아가지 않는다는 점, 민족 담론의 구체적인 성격과 발화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는 점은 연구사의 공백을 남겨놓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고는 기존 연구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러한인매체에서 드러나는 민족주의의 특수한 성격을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술했듯 1910년대 초 러시아의 한인사회는 시공간을 바꾸어 민족운동이 굴절되는 변곡점에 위치한다. 따라서 이 시기, 이 공간을 조명하는 것은 민족주의가 러시아라는 공간에서 계승·변모된 과정을 살피는 작업에 해당하며 독립운동사나 사상사의 차원에서 의의를 지닐 수 있다.¹³⁾ 나아가 이 연구는 시공간적 변화에 대응한 매체의 전략에도 불구하고 민족의식으로 통합되지 못한 실존들을 간접적으로 조명한다는 점에서 고려인 문화연구의 초석을 놓는 작업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II. 영웅담론의 진화와 직분론의 유흥

1. 정신주의의 심화와 변화하는 영웅상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4; 민병진, 「1910년대 일제강점기 민족운동 고찰-춘원의 상하이·블라디보스토크·물린·치타에서의 활동」, 『춘원연구학보』 15, 춘원연구학회, 2019.

- 13) 가령 이 작업은 1900년대식의 열혈주의가 국경과 시간의 벽을 넘어 재러한인매체에서 어떤 형태로 연속되었는가, 나아가 러시아에서 심화된 사유와 감성 중 어떤 부분이 다시 조선으로 전달되어 3·1운동을 일으킬 에너지로 수렴될 수 있었는가(혹은 가능태로서 사산된 유산을 남길 수 있었는가)를 밝히려는 문제의식과 연결될 수 있다. 속지주의에 근거한 사상사·매체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도가 무리해 보일 수 있으나 1910년을 전후해 안중근, 이광수, 홍명희, 현진건, 한용운 등 조선의 청년들이 중국 및 러시아의 국경을 넘나들 수 있었다는 점, 1900년대 후반, 국내의 『대한매일신보』가 미주의 『신한민보』, 러시아의 『대동공보』와 연대 보도를 했고 이때부터 이미 국내 동포들이 일제의 검열을 피해 해외 동포가 만든 항일신문·잡지를 열렬히 구매했다는 사실 등을 염두에 두면 국경을 초월한 저항의 연속선을 상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러시아에서 재개된 민족주의는 개인을 민족이라는 유기체를 위해 복무하는 원자로 호명했다는 점에서 1900년대의 국가주의 노선을 계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전의 방식-교육과 식산을 통한 실력양성-만으로 독립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는 점에서 모종의 인식론적 전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실력양성론이 힘을 잃게 된 이유로는 앞서 논한 ‘정신’이 통일되지 못한 한인들의 분열상, 진화를 통한 ‘역전’을 꿈꾸기 어렵게 한 국권의 상실, 이에 더해 노령 한인사회의 빈약한 물질 기반¹⁴⁾이 있었다. 노령의 한인사회는 ‘실력’ 양성을 통해 유의미한 변화를 기도하기에는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었고, 다른 무엇보다 ‘정신’의 변화와 통일이 시급해 보였다. 이처럼 객관적인 ‘실력’으로 일본을 능가하기에 너무도 절망적인 현실은 망명지사들의 사유를 더욱 급진화시켰다. 역설적이지만, 완전한 실력을 키운 뒤 싸우겠다는 ‘일보의 후퇴’보다 결핍을 감수한 비약-민족을 위해 몸 바치는 ‘정신’ 하나로 好機가 왔을 때 투신하겠다는 ‘두보의 전진’-을 하게 만든 것이다. 이제 새로운 민족 담론은 진화론에 입각한 점진적인 상승을 기약¹⁵⁾하기보다 ‘정신’에 기댄 초월적 비약의 가능성을 타진하게 된다. 힘에 의한 위계는 ‘정신’에 의해 얼마든 전복될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그리고 그 정신의 내용으로 민족의 역사·인물·문화 그리고 러시아정교라는 신념체계를 상정함으로써 운동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게 된다.

실력보다 정신을 강조한 『권업』과 『정교보』의 태도는, “실력양성이 국가의 독립에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립이 부강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지적”한 『대

14) 『권업』에 따르면 해삼위 한인은 “경제적 사정이 다른 곳에 있는 한인보다 얼마큼 나”았다고 한다(「권업회창립일주년기념」, 『권업』 35, 1912.12.19). 실제로 이곳에는 최봉준, 최재형과 같이 상업으로 부를 축적한 거부도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에 이주한 한인들의 평균적인 삶은 녹록지 못했다. 재러한인의 대다수는 한반도에서의 궁핍한 삶을 견딜 수 없어 월경을 선택한 농민이었다. ‘귀국자는 돈 번 사람, 귀화자는 가난한 무직자’로 파악한 러시아 관리의 보고서가 증언하듯, 이주자의 태반은 가난했고 가난을 벗어난 사람은 다시 귀국하는 경우가 많았다(강성희 역, 『러시아문서 번역집. XIX 러시아국립 극동역사문서보관소(РГИА ДВ): 근대한러관계연구』, 선인 2014, 54면 참조).

15) 사회진화론과 실력양성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친연관계에 있었다. 박찬승에 따르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진화론은 식민 통치기에는 적자생존, 약육강식을 공리로 인정하며 독립을 위해 무엇보다 실력을 먼저 기르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기능했다. 박찬승, 「기획2: 사회진화론 수용의 비교사적 검토-한말 일제시기 사회진화론의 성격과 영향」, 『역사비평』 32, 역사비평사, 1996, 339면 참조.

한때일신보』¹⁶⁾와, 때를 기다리며 힘을 기르기를 주장한 완진당보다 적수공권으로라도 싸움에 나설 것을 요청한 급진당을 옹호한 『대동공보』¹⁷⁾의 태도를 계승한 것이었다.¹⁸⁾ 이때 ‘실력’은 칼, 총, 군함 등이 표상하는 군사력·과학지식 그리고 인구와 토지가 말해주는 생산력·자본 등 외적인 힘을 가리킨다. 반면에 ‘정신’은 비가시적이고 무시간적인 형태의 정신적 가치를 말한다. 싸우려는 의지와 총칼 둘 다 필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를 택한다면 ‘의지’라고 말하던 1900년대적인 사고¹⁹⁾는 이제 총칼이 없어도 싸우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반드시 이길 날이 온다는 확신으로 바뀐다.²⁰⁾ “지식이 없어 할 수 없다 교육이 없어 할 수 없다 총이 없어 할 수 없다 칼이 없어 할 수 없다 돈이 없어 할 수 없다는 말은”²¹⁾ 중과부적의 상황에 개입치 않고 일제와 싸우는 내지의 의병들을 상기할 때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한[가지]일을 하자하면 용력도 쓸데없고 자본도 쓸데없”²²⁾다는 당찬 주장은 곧 『권업』에 기술된

-
- 16) 『대한매일신보』가 선독립론으로 기우는 면모는 국망이 임박한 1909년경에 이르러서 엿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같은 급진의 노선은 1900년대 말에는 “소수의 생각”에 불과했다. 박찬승, 「일제 지배하 한국 민족주의의 형성과 분화」,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0, 43면 참조.
- 17) 「급진과 완진」, 『大東共報』, 1910.5.26, 반병률, 「일제초기 독립운동노선논쟁-급진론과 완진론: 초기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5,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6, 105~106면에서 재인용.
- 18) “계승”이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정신’을 강조하는 태도는 『대한매일신보』와 『대동공보』는 물론 『서우』, 『태극학보』 등 1900년대 학회지에서도 빈번히 천명되곤 했다. 그러나 이 시기 정신주의가 실력양성론을 완전히 압도할 정도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19) 「정신과 실력」, 『대한매일신보』, 1909.4.1, “대저 정신만 있고 실력이 없어도 불가하며 실력만 있고 정신이 없어도 불가하니 부득이하여 한 가지만 취할진대 차라리 정신이 있고 실력은 없는 것을 가하다 하리로다.”
- 20) 이러한 인식을 보여주는 기사들을 인용해보면, “한 일을 하자하면 용력도 쓸데없고 자본도 쓸데없이 오직 한결같고 정성되고 거짓말 아니하는 궤약강개한 혈성남자면 족하니라.”(「논설-하여봅시다-말마오 사람없다고」, 『권업』 81, 1913.10.26), “한 주먹의 진흥으로 아직 조수같이 몰려오는 일본의 세력을 막으리라는 단언할 수 없지만은 …… 오호라 마음만 죽지 말어라. 백 가지가 죽고 천 가지가 죽었을지라도 마음만 죽지 않으면 대한이 대한 사람의 대한될 그날이 있으리라.”(「논설-내지의병 소식에 대하여」, 『권업』 66, 1913.7.20),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동포를 믿으며 또 스스로 믿어 …… 믿는 마음만 남보다 풍부하면 오래지 아니하여 국권 자유 군함 대포 박사 학사 철로 윤선 실업 기타천만가지가 폭포수와 같이 폭주할 터이니 동포 동포는 무엇이 없는 것을 근치 말고 다만 믿는 마음이 없는 것을 근심하여”(「논설-신년유감」, 『정교보』 8, 1914.1.1).
- 21) 「논설-내지의병 소식에 대하여」, 『권업』 66, 1913.7.20.

안중근의 결행, 대만과 인도지사의 투쟁, 중국의 신해혁명과 몬테네그로의 독립 등 역사의 실례를 통해 설득력을 얻게 된다.

이 장에서는 민족적 ‘정신’의 보고(寶庫)로서 영웅들의 위업과 가치를 논한 『권업』의 기사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며 1900년대의 영웅 담론이 러시아에서 어떻게 굴절·계승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1900년대의 영웅 담론은 당대의 세계상을 구성하는 지·덕·체의 가치 중 체육을 우선시한 배경 아래 출현했었다. 체육의 발달이 국력증강의 첩경으로 이해되면서 상무 정신은 이 시기 영웅의 성격을 대표하는 핵심적인 특질로 자리 잡게 됐다.²³⁾ 마찬가지로 무장투쟁을 독립의 주된 방략으로 삼은 재러한 인사회에서 상무 정신을 중시하는 태도는 그대로 계승됐다. 영웅을 논하는 논설과 기사 등에 여전히 이순신, 강감찬, 나파륜, 비사맥의 이름이 자주 등장했으며, 『권업』의 경우엔 아예 ‘위인小傳’의 형식 속에 정문부, 김덕령, 서산대사, 황진, 임중량 등 무력으로 왜구를 토멸한 의병장이 입전됐다. 『정교보』는 크롬웰, 잔다르크, 마치니 등을 칭송하며 이들을 종교 사상으로 말미암아 위업을 이룬 존재로 전유하는 듯 했으나²⁴⁾ 이들은 이전 시기부터 위대한 무인 또는 정치가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군사적 영웅만 아니라 사회 각 방면에서 위대한 ‘정신’을 체현한 영웅을 두루 요청하는 기사도 드물지 않았다. “영웅도 각기 장기가 있나니 말 잘하는 영웅도 있고 꺾이는 영웅도 있고 돈쓰는 영웅도 있”²⁵⁾다는 입장 아래, 『권업』은 무력이 아닌 지성과 이상을 담지한 영웅도 두루 소개했다. 그렇게 자국 영웅으로서는 리종휘, 류득공, 한백정, 안정복, 정약용, 박지원 등이 놀라운 학문적 업적과 문학적 성취를 이유로 조명받게 된다.²⁶⁾ 외국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신해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쑨원(孫文)은 용맹한 무인이 아니라 “너른 도량과 간절한 애국심”을 지닌 이상가·지략가였으며²⁷⁾ 발칸의 약소국 몬테네그로를 강국으로 탈바꿈시킨 군주 니콜라스(Nicholas

22) 「논설-하어봅시다 말마오 사람없다고」, 『권업』 81, 1913.10.26.

23) 권보дре,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증보판)』, 소명출판, 2012, 47~48·57면 참조.

24) 마태호, 「기서-종교와 정치」, 『정교보』 1, 1912.1.2.

25) 「논설-사업과 의무」, 『권업』 117, 1914.6.28.

26) 「논설-빨간반도에 새로 흥하는 세 나라(下)」, 『권업』 32, 1912.12.1, “정다산은 고대의 정치제도를 연구하며 박연암 박초정은 중흥기위한 문학으로 올리며 오백년 이래 국수주의로 비춘 높은 문예의 황금시대”를 열었다.

27) 「중국혁명략스」, 『권업』 12-13, 1912.7.21·28.

D)는 국수정신으로 충만한 시문(詩文)을 통해 “국민 개개히 그 뇌 속에 억만년산 같이 높으며 바다같이 깊어 죽지 않고 망치 않는 몬테네그로”를 심어준 이상자·문학가였다.²⁸⁾ 이렇게 체육 외의 다방면에서 ‘영웅’을 발견/발명하는 특징 또한 1900년대의 영웅 담론에서 이미 확인된다는 점에서 ‘계승’된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정리하면 1910년대 러시아에서는 상무 정신이 중심축을 이루는 가운데 다양한 정신적 능력들이 나라의 흥망 요인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이는 전시대의 열혈 애국주의가 더욱 심화한 형태인 동시에, 재러매체들의 ‘정신주의’²⁹⁾적 지향성을 선연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편 변화(굴절)된 요인은 무엇이였을까? 우선 재러매체의 영웅 담론에서 발견되는 가장 가시적인 변화는 영웅의 현재화³⁰⁾다. 『권업』은 1900년대의 역사전기물 그리고 1910년대 조선에서 생산된 영웅 담론³¹⁾ 들과 달리, 영웅을 다룰 때 근(近)과거 혹은 같은 세기를 살아간/살아가고 있는 인물을 포함시킨다. 즉 나폴레옹, 페터대제, 이순신처럼 과거의 인물만이 아니라 니콜라스, 쑨원, 안중근과 같은 동시대의 인물도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영웅으로 취급한다. 위의 세 사람처럼 ‘유사·傳’의 형식 안에서

28) 「논설-몬테네그로 대왕 니콜라쓰의 이야기」, 『권업』 41, 1913.1.26.

29) 본고에서는, 진화론과 결부된 실력양성론으로 수렴되지 않으며 군사·정치적 힘보다 도덕적·정신적 힘을 민족의 성패를 결정짓는 근원으로 간주하는 인식적 태도를 ‘정신주의’라는 용어로 정의하고자 한다. ‘급진론/완진론’의 구분은 각 입장이 중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보다는 독립의 방략으로서 당장 싸움이 가능한가의 여부에만 주목한 것이며, ‘국수주의’는 주로 신채호, 최석하, 박은식 등과 관련된 것으로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중시하며 타민족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견지한 입장을 일컫는다는 점에서, 자국 중심적 역사관 못지않게 그리스도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정신 지향을 보여준 『정교보』의 입장을 두루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30) 송명진은 『권업』에 수록된 「만고의스 안중근전」이 “자국중심의 역사관과 영웅 숭배 사상을 계승” 하였으나 “과거 인물이 아닌 동시대 인물을 입전한다는 점에서” 경술국치 이전의 역사전기물과 차별화된다고 주장한다. 동시대성을 환기하는 인물의 서사를 통해 꺾진성을 제고해 독자에게 허구가 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하며 장르의 지평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송명진, 앞의 논문, 213~215면 참조.

31) 현재와 거리가 먼, 과거 속의 영웅을 제시한 예로 『청춘』의 영웅 담론을 들 수 있다. “『청춘』은 너무 일찍 노쇠했다. 거기에선 이미 현실의 영웅들은 소멸되고 없다. 그들은 한결같이 과거를 떠올리는 기억 속에서만 불리운다. 현재와 조응되지 못한다는 건 영웅들이 박제화된다는 걸 의미한다”(문성환 외 저, 『얼굴과 신체의 정치학: 『소년』과 『청춘』에 새겨진 문명의 얼굴·권력의 신체』, 『『소년』과 『청춘』의 창·잡지를 통해 본 근대 초기의 일상성』,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134면).

독자적인 조명을 받진 않았으나³²⁾ 논설에서 “을사 이후에 산출된 영웅”으로서 호명된 인물로는 민영환, 최익현, 허위, 장인환, 이재명 등이 있다.³³⁾ 이렇게 『권업』은 먼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당대 인물을 영웅화함으로써 독자에게 실재했던 사건을 전달하는 느낌을 주고 영웅에 감정 이입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역사 전기물의 독서는 ‘찬란했던’ 과거를 돌아보며 흐뭇해하거나 탄식하는 일이 아니라 동시대를 앞서간 영웅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는 실천이자 기민한 정신의 운동이 된다.³⁴⁾

둘째, 외국/서양 영웅을 상대화하고 자국/동양 영웅을 그 옆에 대등하게 병렬할 수 있게 된다. 영웅이 겪는 고난을 예로 들면서, 나폴레옹에 앞서 한신을, 크롬웰과 주원장에 앞서 궁예를 본보기로서 먼저 제시하며³⁵⁾ 사상적 차원에서도 “베드로 루터 바울을 의망함도 좋으나 기자 원효(신라증) 퇴계 율곡이 있는 줄도 알”³⁶⁾라는 충고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영웅으로 소개되던 인물의 대다수가 서구 열강의 영웅이었음을 상기할 때, 동시대 동양의 인물을 서구의 영웅과 비견하는 태도는 서양 중심의 문명론적인 시각을 상대화할 수 있는 주체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한 평민으로 일어나서 한 평민으로 물러가니 북미합중국의 총통 와싱턴인들 어찌 이에 지나리요.”³⁷⁾라며 쑨원을 추켜세우는 것이나 “입만 깨고 성질이 비겁한 쥐무리”로 취급 받는 인도인 가운데 “유명한 학자도 있고 격렬한 신문기자도 있고 각지에 유세하는 연설가도 있음”³⁸⁾ 꼬집어 말하는 것이나, 문명의 절대적 표준으로서 서구를 의문시

32) 『권업』에서 몬테네그로의 니콜라스 왕은 41호 「논설-몬테네그로대왕 니콜라쓰의 이야기」에서, 쑨원은 제 1912년 5월부터 1912년 10월까지 연재된 「중국혁명략스」에서, 안중근은 1914년 6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만고의스 안중근전」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한편 김주현은 「중국혁명략스」 연재와 관련된 정보들을 잘 정리해주었는데(김주현, 앞의 논문, 177~179면) 다만 몇 가지 사소한 오류가 있어서 정정이 필요하다. 먼저 그는 해당 연재물이 19회분이 남아 있다고 했으나 18회가 맞으며, “1~3호, 10호, 11호, 18호가” 유실되었다고 했으나 6호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남아 있는 호수에 18호, 26호를 제외한 모든 호수에 이 글이 실렸다고 했으나 필자의 확인 결과, 26호에는 실려 있지만 24호에는 빠져 있다.

33) 「리성재 선생의 연설」, 『권업신문』 82, 1913.11.2.

34) 권업회가 민영환의 혈족과 이재명의 거사를 연극화함으로써 영웅의 삶을 연극의 ‘현재화된 시공간’ 속으로 소환한 것도 비슷한 실천적 효과를 야기했을 것이다. 「잡보-연극회의 성황」, 『권업』 94, 1914.1.1.

35) 「논설-외지에 나온 청년」, 『권업』 85, 1912.11.3.

36) 「논설-참훈」, 『권업』 85, 1913.11.23.

37) 「중국혁명략사」, 『권업』 27, 1912.10.27.

하는 反진화론적인 사유의 소산이었다.

그리하여 자국 영웅이 ‘우리만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보편으로서 세계와 인류를 의식한 발화가 가능해진다. 『권업』은 헤이그 특사로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憤死한 이준을 추도하는 자리에서 “한 나라나 한 동형사람의 추도회만 받지 말고 한번 세계사람의 추도회를 받”자던 그의 연설을 회고한다. 그의 자신감과 용지가 섞인 제안이 그 자신에게 “참언”이 되었다고 전하며 그를 “대한에도 사람이 있는 것을 세계 열강에게 자랑”³⁹⁾한 영웅으로 격상시키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권업』이 서구 열강의 힘과 가치를 상대화하며 자국·자민족 안에서 ‘보편’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가 강자의 힘과 논리만으로 지배·분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내우외환의 상황에서도 신해혁명에 성공한 중국, 유럽 변방의 소국으로서 독립에 성공한 몬테네그로, “열리지 못한 인종”, “토번”⁴⁰⁾임에도 불구하고 비밀결사단을 꾸려 일제에 저항하는 대만, 자신을 통치하는 영국인을 오히려 “저렇게 우둔한 인종”⁴¹⁾으로 표현하는 인도 등의 소식을 접하면서 실감한 사실⁴²⁾이었다.

2. 직분론의 유혹: 영웅의 대중화 혹은 영웅의 소멸

앞서 논한 변화들은 새 시대의 조류에 맞게 영웅의 형상을 수정함으로써 한인들의 민족의식을 고양시키려는 민족주의자들의 고뇌의 산물이었다. 그런데 민족적 자긍심을 불러 넣어줄 영웅이 「만고의스 안중근전」의 안중근이나 자기 몸에 폭탄을 쏙어넣은 인도지사와 같이 숭고하거나 너무 강직한 존재일 경우, 그를 본받아야 할 필부의

38) 「논설-인도지사의 운동」, 『권업』 62, 1913.6.22.

39) 「논설-리준 공의 피 흘린 날」, 『권업』 120, 1914.7.19.

40) 「별보-대만회복당의 피착 후 비밀결사활동의 내용」, 『권업』 87, 1913.12.7.

41) 「논설-인도지사의 운동」.

42) 중국, 발칸 소국 등의 상황을 한민족의 그것과 별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권업』뿐 아니라 『정교보』에서도 확인된다. “재작년 오늘까지 꼬리를 늘이고 만주 정부의 절제를 받던 중화민국의 국민이며 작년 오늘까지 돌케[터키]의 학살을 당하든 발칸반도의 민족들이여 세계사람이 지목하되 동양의 제이차의 자유행복을 누릴 자 오직 우리[한인]라 하더니”(「논설-신년유감」, 『정교보』 8, 1914.1.1.),

입장에서는 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바뀔 말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계몽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영웅을 누구라도 “따를 수 있는 모범”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⁴³⁾이다. 그리하여 “누가 영웅인가 …… 일하기 전 영웅은 없나니 제 일도 하고 남의 일도 하여 헛된 이름을 돌보지 않고 참으로 정성을 다하여 밤낮 애쓰는 이가”⁴⁴⁾ 영웅이 아닌가 되묻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다. 참된 영웅이란 “헛된 이름”에 연연하여 제 직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큰 성현과 영웅의 사업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내 한 몸에 당한 직분과 책임을 아니할 수 없”⁴⁵⁾다고 믿는 존재가 된다.

그런데 이는 영웅론이 자신과 궁극적으로 물과 기름의 관계에 있는 직분론을 전유하는 상황에 가까웠다. 1900년대에도 개인의 윤리를 강조하는 직분론은 중대한 임무를 맡지 않아도 자신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하면 누구나 영웅·애국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로서 영웅론에 포섭됐었다.⁴⁶⁾ 마찬가지로 1910년대에도 영웅과 범인의 차이를 인식⁴⁷⁾하면서도 동시에 양자의 거리를 무단히 좁히려는 노력이 발견된다. “구라파 일쪽을 흔들하던 라파클도 프란츠의 강병이 아니면 혼자서 할 수 없었으며 보로샤를 통일시킨 비사맥”도 말하길 “전승”의 원인은 “다 소학교 교사의 힘”⁴⁸⁾이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직분론이 영웅론과 조화를 이룬 장면은 이광수가 『권업』 124호에 기고한 「식노리」라는 개화가사 형식의 시에서 선명하게 포착된다. 이 시는 “이꽃으로 곁은 관은/뉘머리에 써어주랴”는 구절의 반복 속에 시상이 전개된다. 매 연마다 관을 쓰는 대상은 “건국영웅”, “독립군”, “애국지사” 등 위인적 존재들로 변주되다가 마지막 연에서 돌연 ‘영웅’에게 관을 씌워주던 “우리”가 관을 쓰는 ‘영웅’이 되는 반전을 심어둔 것이 인상적이다.

43) 권보드래, 앞의 2012 책, 57~58면.

44) 「논설-일들 하옵시다 때가 돌아왔소」, 『권업』 104, 1914.3.29.

45) 「기서-사회생활은 공동한 힘」, 『권업』 76, 1913.9.21.

46) 앞의 책, 55~57면 참조.

47) 「논설-몸 바치는 정신」, 『권업』 115, 1914.6.14, “그러나 우리는 사람마다 몸을 바쳐 조국을 광복함에 전력을 다하라함이 아니며 또 그렇게 바랄 수도 없는 바니, 원래 하늘이 만민을 내심에 그 가운데서 총명준결을 빼어 인군이냐 스승되는 지위를 주고 모든 백성으로 그 아래에서 다스림과 가르침을 받게하여”

48) 「논설-사업과 의무」, 『권업』 117, 1914.6.28.

아해들아 산에가자/산에가서 꽃을꺾자/ 꽃꺾어서 관결어서/건국영웅 씨어주자
이꽃으로 결은 관은/뉘머리에 씨어주랴/백두산의 상상봉에/독립기를 세인영웅
.....
이꽃으로 결은관은/ 뉘머리에 씨어주랴/나라위해 원혼되신/애국지사 무덤앞에
이꽃으로 결은관은/ 뉘머리에 씨어주랴/꽃꺾어서 관을결는/우리에게 씨자고나⁴⁹⁾

그러나 대중이 역할에 대한 강조가 반드시 독립운동의 대중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도 부언해두어야 할 듯하다. 『권업』보다 영웅 담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여성, 광산 노동자, 해외 유학생 등 다양한 대중의 목소리를 실었던 『정교보』조차 독립은 결코 한두 영웅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민족의식이 투철한 대중이 마련된 뒤에야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대중이 아니라 그들을 교도할 지도자를 청자로 설정해 발화하는 모순⁵⁰⁾을 노출한다. 노예의 지위에 빠진 민족을 구하는 일은 지난하고 위대한 사업이기에 대중을 이끌 “파격아 영웅”⁵¹⁾이 요청된다는 것인데, 대중의 수량에 대한 강조에서 시작해 영웅에의 주문으로 귀결되는 아이러니 속에서 파시즘적 혐의가 감지되기도 한다.

반대로 직분론을 밀고 나가 영웅의 의미가 무색해져 버릴 위험도 공존했다. 『권업』 101~103호에 실린 기서, 「독립준비흥시오」에서 이광수는 생업을 천시하게 만드는 영웅론을 배격하며 “저가끔 저 먹을 벌이를 하면 만사가 다” 해결된다는 직분론을 개진한다. 이 글에 따르면 현금 세상은 상업 경쟁의 시대여서 무엇보다 착실히 자본을 축적해두는 것이 독립을 위한 가장 큰 ‘준비’가 된다. 이러한 준비 없이는 독립을 얻더라도 그것은 갑오년 이래의 ‘독립’(“생각만 하여도 진저리가 나는 독립”)과 다를 바 없다. 같은 논리는 이광수가 주필로 있던 『정교보』의 기사에서도 발견된다. 여기서 그는 ‘현실주의자’의 입장에서 독립의 과제를 유예하는데⁵²⁾, 흥미로운 점은 독립

49) 외비, 「식노래-꽃을 꺾어 관을 결자」, 『권업』 124, 1914.8.16.

50) 「우리주장-농촌개발의견(農村啓發意見)」, 『정교보』 9, 1914.3.1.

51) 「기서-대호파격아」, 『정교보』 2, 1912.2.1.

52) 「우리주장-자리잡고 사읍세다」, 『정교보』 9, 1914.3.1, “독립 전쟁은 큰일이라 오늘 내일에 될 것이 아니며 된다 하여도 총 한 자루와 본국까지 갈 노자도 있어야 할지며 튼튼한 독립군도 많이 나와야 하지 아니하겠나잇가. 그리하자면 상당한 밑천을 잡아 두어야 할지니”. 『정교보』 9호~11호에서 주관이 뚜렷이 드러나는 글은 대부분 이광수의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간주하고 앞으로의 논의를 개진한다.

‘준비’를 권면하는 그의 태도 속에 문명한 삶을 동경하며 자기를 계발하려는 욕망이 투영돼 있고, 이는 공익과 遊離된 소시민적인 생활 윤리로 낙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돈을 모아 땅만 장만 하시면 그곳에 집을 짓고 본국서 처녀들을 데려다가
집안을 이루고 일변 싸움하기도 배우며 일변 돈도 모으면 **그 얼마나 편안하고
재미 있음즉 하오닛가.**⁵³⁾

진화론적 세계관과 실력양성론에 철저히 입각한 이광수의 글은 정신주의에 경도돼 있던 재러매체에서는 이질적인 성격을 띠었다. 이광수가 재러한인사회의 지도자들을 두고 “교육과 산업으로 이 동포들의 힘을 기르는 것”보다 “당장 있는 힘을 굶어서 쓰기에만 급급”⁵⁴⁾했다고 비판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사실 그는 러시아의 한인 지도층을 대변하는 존재라기보다 한인사회의 ‘외부자’에 가까웠다.

한편 관련 기록이 부족하여 그가 쓴 글들이 재러한인사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수용 되었을지 알기 어렵다. 다만, 짧은 기간이었으나 그가 여러 글을 발표하는 동안 그에 대한 직접적 반론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그의 입장 또한 한인사회를 대변하는 입장의 하나였음을 방증한다. 즉 ‘정신의 심화’라는 가시적인 변화의 표지 아래, 재러매체가 가리고자 했으나 가릴 수 없는 실존의 영역-각자는 영웅이고 민족의 구성원이기에 앞서 생활인이자 욕망을 지닌 ‘개인’이라는-을 그의 글은 주의 깊게 짚어냈던 것이다.

이렇게 『권업』과 『정교보』의 영웅 담론은 1900년대와 비교할 때 유의미한 변화의 양상을 펼쳐냈다. 두 매체는 한편으로 필부의 얼굴을 한 영웅을 재현함으로써 대중적 호소력이 최대화되는 정점에 다가선 동시에, 한편으로 영웅과 범인의 차이를 좁힘으로써 영웅이 궁극적으로 소멸하는 전환의 순간을 담아낸 것이었다.

53) 앞의 기사.

54) 이광수, 『나/나의 고백』, 우신사, 1985, 178면.

Ⅲ. 이성진화론: 종교의 민족적 전유

『권업』이 ‘국수 정신’의 배양을 부르짖으며 내지와 해외의 독립운동 정황을 기민하게 전달하는 민족신문이었다면 『정교보』는 제호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러시아정교회의 사상과 지식을 대변하는 종교잡지였다. 그러나 동시에 “조국 독립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⁵⁵⁾던 대한인국민회의 시베리아 지방총회 기관지였기 때문에 『정교보』가 강한 배일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도 틀림없었다. 이 점을 강조한 선행 연구들은 『정교보』의 종교 관련 기사를 러 당국의 의심⁵⁶⁾을 불식하기 위한 『정교보』의 위장 수단으로,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을 잡지의 본래 목적으로 간주하면서 표면/이면의 이분법적인 틀로 잡지에 접근했다.⁵⁷⁾

실제로 『정교보』의 창간호와 이후의 호들을 비교해보면 이런 설명은 매우 타당해 보인다. 창간호는 「취지서」에서 “본보의 목적은 일절 정치와 간섭이 없고 다만 신도의 신덕과 지식을 배양하며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⁵⁸⁾하는 것이라 밝히고 일제를 직접 겨냥한 기사를 신지 않은 반면, 제2호는 논설 「송구영신의유감」에서 일제에 의해 논과 집을 빼앗긴 한인들의 참상⁵⁹⁾을, 「內地視察談(내지시찰담)」에서 일제가 초래한 황실·행정·사법기관·교육의 파탄을 고발했다. 뒤의 호수로 갈수록 반일적 색채가 뚜렷한 기사의 수는 점점 많아지는데, 이는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정교보』의 다짐이 형식에 지나지 않았으며 검열의 망이 허술함이 탄로난 순간, 숨겨둔 본연의 목소리를 내뿜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55) 윤병석, 앞의 책, 180면.

56) 러 당국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국민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활동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첫째, 장로파 개신교의 전도에 열성적이던 국민회는 러시아제국의 강력한 통치기반의 하나인 러시아정교의 입지를 축소할 수 있었다. 둘째, 강한 배일성향을 지닌 단체라 생각되는 국민회는, 제2차 러일협약(1910.7.4)을 체결하며 일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던 러시아에 불안을 야기하는 세력이었다. 이명화, 「1910년대 재러한인사회와 대한인국민회의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7, 73~74·84면 참조.

57) 윤병석, 앞의 책, 183~184면. 박환, 앞의 책, 191~194면; 이명화, 앞의 논문, 84~85면.

58) 「취지서」, 『정교보』 1, 1912.1.2.

59) 「송구영신의유감」, 『정교보』 2, 9~10면, “어떤 집은 아무태랑(일본인의 이름)에게 이랑 길고 득 높은 논을 빼앗기고 슬퍼하며 어떤 집은 아무무랑(일본인의 이름)에게 떨어져 자산을 탕진하고 슬퍼하며”.

그러나 『정교보』의 여러 기사를 두루 살펴보았을 때 『정교보』의 정교에 대한 관심⁶⁰⁾은 지속적이었으며 종교 문제는 민족 문제와 동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드러난다. 『정교보』에서 종교는 독립이란 ‘더 큰’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 전유되는 동시에 민족적 가치가 정교회적 세계관과 뉘앙스 안에서 제 위치와 성격을 찾아간다. 이 같은 종교와 민족의 변증법 혹은 자가촉매작용은 “종교는 정치의 어머니되고 정치 는 종교의 아들이 되어 국민의 사상을 지도하며 국가의 부강을 도모”⁶¹⁾한다는 메타포 나, 아침마다 독립을 갈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는 정교회 신자를 ‘모범화’⁶²⁾하는 표현 등을 통해 드러난다.

『정교보』는 정교회 사상을 효과적으로 전유한 민족 담론을 전개하여 한인들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고자 했다. 그리고 그 담론들은 군사·정치·자본의 힘보다 도덕과 사랑의 힘을 ‘신앙하는’ 『정교보』의 정신주의적 면모를 확연히 보여줬다. 이 장에서는 독립에 대한 ‘희망심’을 재생시킨 『정교보』의 전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살펴봄으로써 종교와 접속한 정신주의가 민족의식을 어떻게 심화·굴절시켰는지 분석해볼 것이다.

1. 교정된 국망의 원인과 재생된 ‘희망심’

첫째, 『정교보』는 국망의 원인을 교정해 한인들의 독립에 대한 희망을 부활시키려 했다. 서론에서 말했듯 진화론적인 견지에서 국망은 불가피하고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었다. 진화론에 경도된 지식인은 물론 평범한 사람들까지 국망의 현실에 대해 “분

60) 『정교보』 주필이었던 이강이 장로파 개신교도였고 그의 정교로의 개종은 러 당국의 탄압을 피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교보』가 궁극적으로 추구한 종교가 개신교와 확실히 구별되는 정교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의 장엄미, 공동체성과 신비주의적 특성에 바탕을 둔 정교회와 칼뱅주의·장로주의에 입각한 장로교파는 분명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상술은 본고의 목적에서 벗어난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에서 논의되는 정교는 러시아 국교로서의 ‘특수성’보다는, 가톨릭·개신교와 함께 성경의 서사를 공유하는 ‘보편성’에 더 착목한 개념이다.

61) 마태호, 「종교와 정치」, 『정교보』 1, 1912.1.2.

62) 「교회소식-량씨의 믿음이라」, 『정교보』 1, 1912.1.2, “본지에 거류하는 김경삼 씨는 종교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로 항상 기도를 쉬지 않는 중 아침마다 일어나면 곧 동남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우리나라의 독립을 속히 주옵소서 …… 과연 정교를 믿는 형제자매의 모범이 될이라** 하노라.”

노하는 대신 비애에 사로잡히는 것은 한반도 전체를 통해 일반적 반응이었던 듯 보인다.”⁶³⁾ 나라가 망한 것은 ‘우리’의 힘이 부족한 탓이었기에,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부끄러워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싸울 힘과 이유가 남은 열성적인 민족주의자에게 ‘약자’의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는 진화론의 ‘합리적’ 설명 방식은 거부감을 줄 수밖에 없다. 그에게는 약자의 침묵과 절멸을 옹호하는 적자생존의 논리가 정의롭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강직한 그는 이제 진화론과 거리를 두며 국망이란 ‘밀바닥’에서 독립의 희망을 샘솟게 할 대안을 찾아 나서게 된다.

『정교보』의 논자는 이 같은 고민 속에 국망의 원인을 한인들의 신앙심과 도덕의 부족에서 찾았다. “우리의 오늘날 당한 참혹한 형상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전국 상하 인민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마귀의 꾀임을 받아 서로 속이며 서로 잡아 먹는”⁶⁴⁾ 데서 비롯한 것이라 주장한 논자는 진화의 법칙에 충실한 개아들의 투쟁을 아귀다툼의 형국으로 묘사하며 그것을 국망의 주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처럼 국망이 ‘타락한’ 과거에 대한 신의 심판이라는 주장은, 기독교적 상상력에 입각해 ‘단죄와 회개의 수사학’을 구사한 『대한매일신보』를 계승하는 측면이 있다. 원래는 민족 내부의 적(敵)을 ‘마귀’로 처단·배제하는 동시에 회개를 통해 거듭난 존재를 민족의 일원으로 포섭하려는 목적⁶⁵⁾에서 생산된 수사가 ‘타락한’ 역사에 대한 회개를 통해 민족의 신생을 꿈꾸게 하는 논리로 전환된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인이 만일 회개하면 일흔번씩 일흔일곱번이라도 용서하여 주신다 하였으니 우리 동족이 모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아흔 아홉마리 잃지 아니한 양보다 잃었던 양 한마리 찾은 것을 더 기뻐하사 진로하심을 거두시고 가람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니”⁶⁶⁾ “우리가 마땅히 전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오늘날 당한 참혹한 형상을 태고안락할 지경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라.”⁶⁷⁾ 민족의 흥망을 신의 응보로 설명하는 논법은 거칠고 진부해 보이지만 물질 조건과 관계없이 약자가 갱생할 수 있는 희망을 제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63) 권보드래, 앞의 2019 책, 161면.

64) 「종교론-정교론」, 『정교보』 1, 1912.1.2.

65) 노연숙,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기독교적 상상력」, 『민족문화사연구』 31, 민족문화사연구소, 2006, 255~256면 참조.

66) 할빈 김성옥, 「축하 정교보」, 『정교보』 4, 1912.6.1.

67) 「취지서」, 『정교보』 1, 1912.1.2.

도 했다. “두손을 읊하고 예수씨의 앞으로 나아와 기도하고 찬송하면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을 주시려고 예비하여 두신 하나님께서 곧 보응할”⁶⁸⁾ 것이라는 확신에서 알 수 있듯이, 신앙심은 패배의 누적에도 결코 바래지 않는 “영원한 희망심”⁶⁹⁾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망의 원인을 민족 내부의 결함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진화의 원리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정교에 무관심한 한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정교가 개인과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을 강조한 점도 마찬가지로 『정교보』가 문명과 야만의 위계를 전제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정교보』는 강자 되는 첩경으로 기독교를 수단화한 『서호문답』과 『경세중』(1910)⁷⁰⁾, 한말 기독교신문들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교보』가 기독교를 문명의 표상으로 이상화하며 그에 뿌리를 둔 서구에 동화되려는 욕망을 표출한 것은 맞지만, 동시에 “야심가의 취미에 맞지 아니하며 부강한 나라 사람의 눈에 차지 못하”⁷¹⁾는 ‘사실’을 둔, 명예, 힘보다 더 중시했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사실’이란 ‘국권을 빼앗긴 1910년이 동포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구원의 해(年)’라는 사실이다. 이는 『정교보』가 국가·민족의 문제에 눈감았다는 말이 아니라 나라 잃은 비참을 절감하면서도 이를 극복할 비전을 외력이 아닌 ‘정신(신앙)’에서 찾았다는 말이다.

2. 이성진화론과 위계의 전도

그러나 신앙심의 깊이만 가지고 『정교보』가 추구한 ‘정신’의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다. 달리 말해 『정교보』는 하나님이 개종한 한인에게 보응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비신자들은 물론 신자들의 투지를 버리기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정교보』는 신을 믿는 일이 ‘문명부강’해지는 일과 다르지 않음을, 그리고 신이 망국인종에 불과한 한인들에게 진정 도움의 손길을 뻗을 것임을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가며 설명

68) 권화순, 「기서-천리에 길이 하나 있음」, 『정교보』 2, 1912.2.1.

69) 박대선, 「기서-참 좋은 소식이오」, 『정교보』 1, 1912.1.2.

70) 권보드래, 「신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의 의미-〈금수회의록〉, 〈경세중〉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6, 한국현대문학회, 1998, 15·26면 참조.

71) 「논설-아령 한인 정교회의 근상」, 『정교보』 1, 1912.1.2.

할 수 있어야 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 하에 『정교보』는 회심한 한인이 추구해야 할 덕목으로 신앙심과 더불어 ‘도덕(심)’을 제시한다. 이때 도덕은 종교적·인륜적 당위의 차원에서만 요구된다기보다 약육강식의 법칙을 넘어서 독립과 문명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요청되는 것이다. 『정교보』에 의하면 문명을 발달시킨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도덕’이다. “도덕은 만 가지 재능의 본체(本體)”이므로 군사·과학 기술과 지식 등의 “재능”은 모두 이것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 먼저 “도덕을 배양하여 재능 응용하는 근본을 삼”⁷²⁾는 게 올바른 순서다. 물론 『정교보』가 말하는 도덕은 십계명과 같은 종교적 계율 또는 私的인 인격 수양의 차원에 제한된 개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제4호의 논설, 「애독제군에 대하여」는 이 같은, ‘도덕’에 대해 예상되는 편견과 오해를 불식하며 ‘도덕’의 의미를 개인의 수양, 종교적 신념, 박애 정신 모두를 포괄하는 동시에 민족 결속과 통합을 촉진하는 다층적 의미로 구체화한다.

늘 본보는 어찌하여 **생존 경쟁의 큰 말은 하지아니하고** 도로혀 온유하여라 겸손하여라 사랑하여라 **도덕담만 기록하며** 본보는 어찌하여 원수를 베고 자유를 찾으라는 쾌활한 언론은 쓰지 아니하고 도로혀 **한가한 종교토론만 요구** 하나뇨 …… 그러나 애인여기하며 살신성인하는 **박애주의**와 백절불굴하며 만사불회하는 **모험성**과 믿으면 무소불성이란 **신앙심**과 영원한 내세의 영광을 바라는 **희망심**이 풍부한 종교가 없으면 사회는 조직하더라도 작당자와 일진회원 같은 자만 모이며 회사는 조직하더라도 공전을 도적질할 자만 모이며 …… 우리의 간절히 요구할 바 많은 중 **제일 급하고 긴요한 것은 도덕**이라 불지어다.⁷³⁾

논자는 『정교보』의 도덕론을 순진한 “도덕담”, “한가한 종교토론”으로 일축하는 자들을 되레 비판하며 그들의 조급증을 문제 삼는다. 애국·애족하는 마음, 신앙하는 마음을 단련하는 철저한 ‘준비’ 없이 독립만 갈구하는 것은 무용하다는 것이다. 남을 위해 자신을 바칠 수 있는 “박애주의”와 흔들림 없이 목표를 위해 전진하는 “모험성” 없이 외력만을 기른다면 비록 독립에 성공하더라도 “일진회원 같은” “영리한 마귀”

72) 앞의 기사.

73) 「논설-애독제군에게 대하여」, 『정교보』 4, 1912.6.1.

로 가득한 사상누각을 짓는 데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리는 자본의 축적 없이 독립만 추구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본 이광수의 논리와 흡사해 보인다. 실력의 ‘준비’를 빌미로 독립을 기약 없이 유예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정교보』의 입장은 점진적인 실력양성론과 구별된다. 첫째 『정교보』는 1900년대적인 열혈 정신의 벡터를 간직하고 있었다. 『정교보』가 요청한 “인성의 파격”은 정치와 단절한 채 이루어지는 탈속적인 수양이 아니라, 혁명적 폭발의 가능성을 내장한 채 “진신자 진애국자”⁷⁴⁾(4호 2면)가 되는 “분투적 생활과 활발한 정신”⁷⁵⁾을 가리켰다. 『정교보』에 따르면 인성의 진화를 이룩한 존재는 “하나님의 뜻이여든 불에도 들어가며 물에도 들어가며 …… 벽력으로 막아도 들어가 전파하며 제왕의 위력으로 막아도 들어가 전파하며 천하에 뉘 능히 금지할 자 없어 누룩같이 번치며 불같이 만연”⁷⁶⁾하게 된다. 이처럼 『정교보』는 ‘도덕’을 사회적인 선(善)을 추구하려는 마음에 한정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실행력과 예측 불가한 전염력을 포괄하는 능력으로 전유하여 정신의 역동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주필로서 『정교보』를 오랫동안 이끌어온 이강⁷⁷⁾의 이력과 성향을 생각하면, 종교적 신념과 민족의식이 서로 구분되지 않고 만사불굴의 저항정신으로 수렴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후기에 이광수가 『정교보』의 주필을 역임(9~11호)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된다. 이광수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들의 성격이 『정교보』의 정신주의적 지향과 배치되어 『정교보』를 준비론적 입장에 경도된 매체로 인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조해둘 것은, 이광수의 논리는 진화론에 깊이 침윤돼 있지만 『정교보』에 쓰인 그의 글에는 그의 일관된 진화론적 입장과 모순되는, 정신의 비약·일제와 정면 대결하겠다는 의식·이 또한 표출된다는 점이다.

74) 앞의 글.

75) 「기서-대호파격아」, 『정교보』 2, 1912.2.1.

76) 「종교론-정교론」, 『정교보』 1, 1912.1.2.

77) 오산 이강(1878~1964, 본명 이정래)은 말년을 제하면 거의 평생을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독립운동가였다. 안창호와 절친한 사이였던 그는 안창호와 마찬가지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했는데, 미주에 이주 당시, 리버사이드 미이미교회의 전도사로 활약했으며 시베리아에 와서는 정교회로 개종하고 정교회 전도사가 됐다. 한편 중국으로 활동 반경을 옮겼을 때도 중국 기독교계 인사들과 깊은 결속을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그의 삶에서 종교는 민족만큼이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는 이기순, 「오산 이강의 생애와 독립운동」, 『역사와 실학』 66, 역사실학회, 2018을 참조.

우리는 멀지 아니하여 큰 전쟁-바라고 바라던 독립전쟁을 하여야 하겠다. 그 때에 병정될 이도 우리 대장될 이도 우리 군량 마련도 우리 총검 장면도 우리가 하여야 한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돈으로 준비하여라. 전술도 배우자. 남들에게 책을 읽어 달라서라도 싸움하는 법을 대강 배우자. 백두산 위에 깃발 폴폴 날리거든 모두 다 우리 달려나가자⁷⁸⁾

위의 글에서 이광수는 “준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가까운 미래⁷⁹⁾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외세의 도움 없이 한인이 직접 주체가 되어 독립전쟁에 뛰어들 것을 다짐·촉구하고 있다. 여기서 그가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믿었는지는 회의적이다. 그보다는 『정교보』가 속한 국민회와 재러한인사회의 열띤 분위기를 거스릴 수 없었거나 본인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전염돼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보다 앞서 「화산과 지동」(1914.2.1)이란 제목으로 『권업』에 기고한 글에서도 이러한 급진론이 엿보인다. 화산과 지진의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겠다는 목적에서 출발한 이 글은 휴화산과 사화산의 차이를 설명하던 중 돌연 논점을 벗어나 민족의 정신에 대해 발언한다. “정신적 휴화산인 우리 민족정신은 불원에 대폭발 대분화를 시작하여 반도에 날뛰는 마귀를 일시에 소멸하오리다.”⁸⁰⁾ 비록 진화의 시간이 누적된 후에야 가능한 폭발이지만 점진주의에 인해 냉각되지 않는 정신의 熱度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러시아에서 개진된 이광수의 실력양성론에는 그 내부에 자신과 충돌하는 情動이 투입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00년대의 실력양성론과 구별되는 『정교보』의 또 다른 특성은 약육강식론에 반기를 들며 진화론의 위계질서를 전복하려 한 점이다. 『정교보』는 문명과 비문명을 구분하는 진화의 단계론은 수용하되, ‘적자(適者)됨의 조건’(실력)으로 힘이 아니라 사랑과 도덕심을 배치함으로써 문명을 동경하면서도 도덕성이 결여된 일제를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었다. 『정교보』에 따르면 일제가 이룩한 문명은 이탈리아나 미국의

78) 빅, 「우리주장-재의 동포의 현상을 논하여 동포 교육의 긴급함을」, 『정교보』 11, 1914.6.1.

79) 반병률, 앞의 논문, 106면 참조, “1913년말 러시아연해주의 항일독립운동세력은 러일전쟁 10주년이 되는 1914년을 항일결전의 기회로 인식하고 ‘급진주의적 거사’를 계획하였다.” “1914년이 되면 ‘제2의 러일전쟁’이 발발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었는데, 이 같은 고조된 열기는 자바이칼 주의 운동세력에게도 분명 옮겨졌을 것이다.

80) 외빅, 「강단-화산과 지동(火山과 地動)」, 『권업』 96, 1914.2.1.

경우와 달리 “도덕으로 좇아 나온 것이 아니요, 졸연히 일시형식으로 이론”⁸¹⁾ 것이므로 머지않아 ‘물병에 꽂은 꽃가지’처럼 시들고 말 것이다. 도덕을 기준으로 본다면 오히려 ‘우리’가 “문화가 먼저 발달된 나라”의 백성이고 일인은 “아직도 야만의 행동이 많은 저 삼도 왜적”⁸²⁾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인에 대한 일인의 지배 또한 외력에 의한 한시적인 것에 불과할 것이며 도덕에 기초한 ‘진정한 힘’의 대결에서는 승패가 다를 수 있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둘 있다. 하나는 『정교보』의 2~4호에 연재된 「대주교 장서 [長逝]」다. 이 글은 자신의 안위를 조금도 돌보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선교에 힘써 일인을 감화시킨 니콜라이 대주교(Николай Японский)의 행적을 요약하며 ‘참문명’을 낳는 힘으로서 사랑·도덕이 정치·군사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기사에 따르면 니콜라이는 러일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도 귀국하지 않고 일본에 남아 선교에 열중하여 일본 국민의 마음을 감화시켰고 중병으로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도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함 없이 文簿를 마감하고 예배를 이행한다. 그렇게 그의 성자다운 태도는 “씨를 신앙하는 자 정교인뿐 아니라 전국 인민과 각 대신과 일왕까지” 되도록 만들었다. 이는 ‘怨讐’의 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러면서도 “고국을 잊지 아니하”⁸³⁾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요컨대 니콜라이의 장서는 러시아가 비록 군사전에서는 패했어도 신앙과 도덕의 차원에서는 원수를 승복시킬 수 있었던-이례적으로 임종시 외국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천황’의 화환을 받은⁸⁴⁾-사례였다.

다른 하나는 『정교보』 제2호에 실린 논설 「모든 미천한 자의 예물로 오신 구주의 한 일」이다. 이 글은 그리스도가 몸소 보인 사랑의 실천을 거론하며 강권·패권주의를 극복하려 한다. 예수가 약자들을 특별히 사랑했던 사실을 통해 약자와 강자의 지위를 전도시키며 반진화론적인 주장을 표출하는 것이다. 글에 의하면 예수가 지식이 모자란 어린이, 힘이 부족한 여성, 돈·명예가 없는 비천 자를 특별히 더 사랑하였던 사실은 약육강식의 질서에 변화를 주어 평등한 세상을 이루고자 한 목적에서였으

81) 「논설(論說)-俄領에 있는 韓人은 정교로 統一함이 必要함」, 『대한인정교보』 5, 1912.8.1.

82) 묵국과객, 「기서-지는 일생」, 『정교보』 6, 1912.9.1.

83) 「교회통신-대주교의 장서」, 『정교보』 2, 1912.2.1.

84) 위키백과(일본정교회), https://ko.wikipedia.org/wiki/%EC%9D%BC%EB%B3%B8_%EC%A0%95%EA%B5%90%ED%9A%8C(검색일: 2021.2.21.).

니, 지금에 ‘약자’라고 업신여김을 받는 존재들도 단번에 ‘강자’가 되는 “아름다운 결과”를 희망할 수 있다. “강대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쓰나니 내가 온 것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는 예수의 전언은 20세기에 “홀로 약하고 누추하고 못하고 병든 자”⁸⁵⁾인 한인이 현재의 ‘실력’ 없음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실력 없는 ‘미천한 상태’의 잠재력을 특별히 여길 수 있게 해주었다. 이렇게 『정교보』는 힘의 논리에 입각한 진화의 패러다임을 인성적·도덕적 차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제국주의와 동화되지 않는 진화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다.

IV. 동정의 구심력과 원심력

1. 동정의 구심력과 그 한계: 심화 또는 경화되는 민족의식

국망이 진화의 희망을 차단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실력’ 없는 민족으로 하여금 ‘정신’에 기댄 비약적인 ‘진화’를 추구하게 한 역설을 앞선 장들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국망이 이렇게 정신주의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 것은 물론 ‘동정’이란 감수성을 새롭게 배태시킨 사실 또한 주목할만하다. 이 장의 결론을 앞당겨 말하면 재러한인매체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된 동정의 수사학은 역설적으로 외지와 내지의 구분을 통해, 분열된 외지 한인들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양자의 거리를 부단히 좁히며, 그 구분을 낳은 억압의 조건을 타파하려는 민족 담론의 새 전략이었다. 과거에도 존재했던 동정이란 감성⁸⁶⁾이 이렇게 민족 담론의 맥락 속에서 새로이 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85) 「모든 미천한 자의 예물로 오신 구주의 한 일」, 『정교보』 2, 1912.2.1.

86) 김성연과 손유경은 동정이란 용어가 1910년대 이전에도 사용되었으나 1910~1920년대만큼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큰 파급력을 발산하며 시대를 대변하는 “지배적 감수성”으로 기능한 적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고 또한 동정을 초역사적인 인간의 보편적 감성으로 중화하는 관점에 반대하는 동시에, 두 논자가 주목한 동정 담론의 前史로서 1910년대 초 재러한인매체의 동정 담론을 제시하려 한다(김성연, 『한국 근대 문학과 同情의 계보-이광수에서 『창조』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2, 10~11면; 손유경, 『고통과 동정』, 역사비평사, 2008, 24~25면 참조). 한편 동정의 개념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동정의 정치적 기능뿐 아니라 그 윤리적 딜레마를 두루 고찰하는 데 적합한 손유경의 정의-① 대상과의 정서적 일치와 지적 분리의 공존 ②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확장 ③세계와의 소통을 추구하는 수고스러운 창조 활동(손유경, 앞의 책, 23면)-

1910년에 현실화된 국망이 외지동포로 하여금 내지동포를 “삼천리 큰 옥에 갇힌”⁸⁷⁾ 혈육으로 상상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림 1〉 13도로 구획된 한반도를 도장관의 얼굴들로 표현했다. (『매일신보』 1917.1.1.)



〈그림 2〉 태극기를 내건 배를 기다리는 슬픈 얼굴들로 13도를 상징화했다.
(『논설-국치무망일』, 『권업신문』 1913.8.29)

동정 담론은 재러한인이 돌아가야 할 곳이자 구원해야 할 곳으로 ‘내지’를 호명함으로써 재러한인의 삶에 생존의 차원을 넘어선 의미를 부여하고 민족적 결속을 강화하고자 했다. 내지동포들을 구원받아야 할 대상, 즉 고통받는 대상으로 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강렬한 효과를 자아낸 것은 아마도 일제가 그들에게 가한 악형을 뽐진하게 그리는 것이었을 것이다. 『권업』과 『정교보』 모두 소문으로밖에 본국 소식을 들을 수 없는 ‘외지동포’의 처지에서, 내지의 참상을 목도

를 따른다.

87) 랑목생, 「기서-내지형편 현행악형의 종류」, 『정교보』 6, 1912.9.1.

한 자의 목소리를 빌려와 직접 인용하는 방식을 통해 현장감과 구체성을 제고하려 했다. 이를테면 1913년 10월, 해삼위 권업회관에서 개최된 이동회의 환영식에서 그가 했던 연설을 그의 목소리를 통해 전한다거나(“나는 눈으로 보며 몸으로 견대던 내지 참상을 말하고자하나 …… 내가 년전에 갑산 등지에서 어떠한 의병의 부인이 원수의 손에 죽는 것을 목도하였소. 두 다리를 나무에 끼구로 달고 말 못할 곳에 숯불을 피워 그렇게 죽이는 것을 보았소”⁸⁸⁾), 한국에 체류하는 미국 선교사가 일인의 악형을 영국 신문에 자세히 기술한 것을 옮겨 적는 것(“김치홍이란 이는 七十일 동안을 하루에 두번씩 악형을 당하여 원팔빠가 모두 부스러졌는데 이것은 줄곤 二十일 동안을 겨드랑이에 뺏줄을 동여 끼구로 달아두고 난장을 한 까닭이더라.”⁸⁹⁾)이 『권업』이 택한 방식이었다.

『정교보』도 마찬가지로 일제의 악형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자의 시선을 빌어 끔찍한 고문상을 사실적으로 제시한다. 6호 「내지형편 현행-악형의 종류」는 “내지를 떠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외양에 있는 동포에 비하면 십분 소상히” 내지 사정을 아는 랑목생이 “내지에서 현행하는 각종 악형을 보고 들은 대로” 전하는 글이다. 그는 15개의 항목으로 악형을 구분해 전하는데 마지막에 별도의 사례를 (아마도 수사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덧붙인다. “강원도 통천 등지에서는 의병을 잡아 큰 가마에 넣고 산 채로 삶아 죽이었는데 그 해골은 왜놈론선에 선의(先醫)로 다니는 왜놈이 청원하여 얻어다가 동경에서 오십원씩에 팔았소.”⁹⁰⁾ 2호의 본국통신 「죽이면 거저나 죽이지」 또한 의병에게 행해지는 악형의 사례 6가지를 열거하며, 4호의 「별보(別報)」도 가까스로 내지를 탈출한 자의 목소리를 실어, 일제가 “사오십년전 우리나라에서 쓰던 악형을 베풀며 또 최면술과 몽혼약”⁹¹⁾까지 사용하고 8~9세된 아이들까지 잡아들이고 있다는 참혹한 사실을 전한다. 위 기사들은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독자의 깊은 동정심과 책임감을 자극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⁹²⁾

88) 「리성재 선생의 연설」, 『권업』 80, 1913.10.19.

89) 「한인에 대한 일인의 악형」, 『권업』 90, 1913.12.21. 강조는 원문.

90) 랑목생, 「기서-내지형편 현행악형의 종류」, 『정교보』 6, 1912.9.1.

91) 「별보-근일 내지로부터 사면팔방에 배치한 원수의 철망(애국자를 잡는 그물)을」, 『정교보』 4, 1912.6.1.

92) 일례로 「한인에 대한 일인의 악형」(『권업』 90)은 내지의 참상을 목도한 ‘외부인’(외국선교사)의 목소리를 본문에 액자 속 내부 이야기로 삽입했음에도 결미에서 다시 본-기자의 서술로 복귀하며

그런데 루소와 손택을 인용한 『고통과 동정』에 따르면 동정의 주 원천은 상상력이기 때문에 폐병과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육체적 고통보다는 실연의 상처처럼 주관적이며 다소 모호한 정신의 번민이 청자에게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다. 즉 풍부한 재현적 잠재력을 내포한 서사와 이미지가 실질적인 고통 그 자체보다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된다.⁹³⁾ 이에 의하면 고문받는 내지동포의 육체적인 고통을 찡찡하게 묘사한 것은 단지 안타까움이나 연민만을 생산할 뿐⁹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매체가 그려낸 끔찍한 고통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고통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인간에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그 상상력의 한계를 의심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고통의 압축적 제시에 가깝다. 그리고 때로는 낭만적이지도 막연하지도 않은, 구체적이고 찡찡한 체험의 보고가 때로 더 큰 미학적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좋은 예시는 아닐지 모르나 어떤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신앙심을 ‘불어넣기’ 위해 지옥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행태나, 자선단체에서 후원금을 유치하기 위해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클로즈업하는 것은, 고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닌 즉각적이고 확실한 효과를 인지하기 때문이다.⁹⁵⁾

나아가 재러한인매체는 지사들이 받는 악형과 같이 극적인 사례에만 기대서 한인들의 동정을 끌어내려 하지 않았다. 『정교보』 2~4호에 연재된 「내지시찰담」은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내지에서 부당하게 재산을 잃는 비극을 서사화한다.

년전에 서울 있는 어떤 사람이 한 명 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중부수표교 등

다음과 같은 발언을 꼭 수행한다. “기자왈 …… 수단한 지사의 호곡소리를 듣고도 팔장 사비고[sic] 오래 앉았는 것은 또한 므리하지[sic] 않은가. 오호라 백만 이상되는 해외동포여.”

93) 손유경, 앞의 책, 156~157면 참조.

94) 재러한인매체가 재현한 고통이 설령 육체적이고 실제적인 고통이었더라도, 그 고통은 결국 사실적인 표현을 통해 직조된 생생한 ‘이미지’와, 독자에게 감상적(sentimental)으로 호소하는 낭만적인 ‘언어’를 경유해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학적 분석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육체의 고통과 정신의 고통을 나눠 생각하는 태도 자체가 어쩌면 함정일 수 있다.

95) 문학의 예를 들면, 1920년대 최서해가 문단의 총아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 경성 고학생들로 구성된 갈뚝회가 사회 각층의 동정과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관념적, 낭만적 예술 형식과 구별되는 사실성(“더 이상 연극이 아니라 그 삶 자체”)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우수진, 「갈뚝회 소인극 연구-사실성과 동정의 스펙타클」, 『한국극예술연구』 35, 한국극예술학회, 2012, 63면.

지에 있는 자기 집 하나를 농공은행(農工銀行)에 잡히고 오백원의 빚을 사고자 하는데 그 집의 실가인즉 당시 이천원 가치가 되는지라. …… **그 집의 시가가 일천원에 불과하다 하여 겨우 삼백원을 주기로 말하는지라.** 그 사람이 자기의 소청한 액수에 차지 아니한즉 소용이 없음으로 그 은행에는 빚을 내지 아니하고 부득의 일본인 전당국에 잡히고자 한즉 일인이 □부없이 육백원을 지출하는지라. …… 그 후 삼개월이 지난 뒤에 본전과 변리를 판비하여 전당국을 간즉 그 일인이 돈을 받고 집문서는 주지 아니하거늘 그 사람이 문서를 달라한즉 일인의 대답이 수일만 참아 달라하는지라. …… **그 일인은 우리사람에게 집문서를 전집하였다가 다시금 문전으로써 은행소의 혈한 변리와 많은 금전을 얻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높은 변리와 저른 기한으로 빚을 주는 모양인데 우선 은행에 대하여 얻은 액수는 일천원이오 기한은 삼개월이라.** 우리 사람이 이것을 보고 심히 분하여 그 은행에 질문도 하며 욕도 하였으나 이것은 속담의 주먹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이 소용이 없고 도로혀 해로운 관계만 있는지라. 혼자 탄식하고 돌아갈 뿐이며⁹⁶⁾

어떤 사람이 급전이 필요해 농공은행을 찾았는데 은행은 시가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게 빚을 주는 법”을 어기고 원하는 액수를 주지 않는다. 할 수 없이 높은 이자를 주고 일인에게서 돈을 빌렸는데 알고 보니 일인은 자신의 집문서를 농공은행에 맡기고 돈을 빌려 다른 한인에게 이자 놀음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정교보』는 실존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어도 울분과 한탄을 자아내는 서사가 지닌 “재현적 잠재력”을 인지하고 있었다. 실업의 영역뿐 아니라 이 글이 담아내는 황실, 행정과 사법기관, 교육, 종교, 군사의 ‘몰락’도 마찬가지다. 사소하지만 일상적인 고통은 육체적 고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분노와 동정을 자아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었다. 「내지시찰담」의 결말은 일제의 교활한 정책들에 의해 ‘무지각한 노예’가 되어버리는 내지한인을 입 있는 병어리, 귀 있는 귀머거리, 수족 있는 전신불수에 비유하며 그들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정을 받아 마땅한 존재로 명시한다.

그런즉 천하에 가장 불쌍한 자는 나라 없는 민족이오. 나라를 잃은 우리 한인 중에 **가장 불쌍한 자는 우리 내지동포**가 아닌가. 슬프고 슬프다. 오늘날 이

96) 「内地視察談(내지시찰담)」, 『정교보』 3~4, 1912.5.1・6.1.

아청랑지에 와서 사는 우리 형제자매야. 이 소식을 들었는가 듣지 못하였는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리는가 아리지 않은가 동포 동포여.⁹⁷⁾

외지동포에 대한 호명으로 마무리되는 결말에서 알 수 있듯이, 내지의 참상을 전하는 모든 기사에는 해당 사연이 그저 놀랍고 안타까운 일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글을 읽는 모든 한인의 동정과 의분을 솟구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강하게 전제돼 있다. 기사는 감상적인 어조로 독자의 공감력을 시험하고(“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리는가 아리지 않은가”) 자연스럽게 독자=외지동포(“우리 형제자매야”⁹⁸⁾)와 내지동포(“그대의 부모”, “그대의 젊은 처자”, “그대의 어린 자녀”⁹⁹⁾)를 한 가족으로 상상하게 만든다. 이는 동정이 가족처럼 자신과 가장 가까운 존재로부터 먼저 발생한다는 사실¹⁰⁰⁾을 기초로, 국가라는 구심점을 잃고 외해된 공동체를 혈연적 근거에 기초한 민족 집단으로 재구성하는 데 동정의 수사학적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 재러한인매체가 보여준 동정담론의 의의는 무엇이었나. 그것은 적자생존을 공리로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동정을 활용해 민족애와 독립운동에 대한 열정을 고양시켰다는 점에 있다. 몇 년 뒤 식민지 내에서 생산된 동정 담론이 자본주의와 식민 체제 자체는 건드리지 않은 채 선량한 ‘강자’의 자선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의 부분적 결함을 메우는”¹⁰¹⁾ 방식으로 공동체의 결속을 다졌다면, 재러매체의 동정 담론은 내지와 외지의 구분을 만든 식민 권력을 직접 겨냥하며 내지에서는 발설될 수 없었던 고통들이 망각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운동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던 것이다. 여기서 재러한인은 스스로를 약자(“천하에 가장 불쌍한 자”)로 그리면서도 자기보다 더 ‘약자’인 “내지동포”의 고통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드러낸다. (“차라리 우리 전체가 한날 한시에 굶어죽을지언정 어찌 이러한 정경을 보고 모르는 체 하리오.”¹⁰²⁾) 비슷한 시기, 식민지 조선에서 강자가 아니면 진정한 동정의 실천은

97) 「内地視察談(내지시찰담)」, 『정교보』 4, 1912.6.1.

98) 앞의 기사.

99) 「노름을 경계하는 말-대도보조등」, 『정교보』 4, 1921.6.1

100) 손유경, 앞의 책, 18면.

101) 앞의 책, 100면.

102) 「서간도 의연발기-정교보사가 서간도 의연을 발기하나다」, 『정교보』 11, 1914.6.1.

불가능하다고 본 양견식의 현실주의적 진단¹⁰³⁾과 상반되고 그래서 또 낭만적으로도 느껴지지만, 이 같은 발화가 내지보다 더하면 더했을 처지에서 구체적 실천을 전제하며 수행됐음을 생각하면 어떤 윤리적 극점을 보여주는 장면¹⁰⁴⁾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동정 담론이 외지동포의 시각에서 특수한 목적을 위해 재생산되었다는 점은 동시에 담론의 명백한 한계를 암시하고 있음을 함께 지적해두어야겠다. 동정 담론의 한계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동정이 외지동포에 대한 억압으로 작동한 부분으로, 내지동포의 고통에 공감하는 재러한인들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동정이란 감정의 자발성과 사적이요 내밀한 차원은 거의 외면 되다시피 한 점이다. 동정이 사회를 발달시키는 요긴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논하였으나¹⁰⁵⁾ 동정에 대한 논의가 근대적 자아와 개성에 대한 논의로 심화하진 못했고 결국 동정은 “사회통합이라는 대의를 구성원 각자의 내면에 착실히 주입하는 핵심 기제로써 작용”¹⁰⁶⁾했을 뿐이었다.

둘째, 동정은 시혜자와 수혜자 사이에 존재하는 모종의 위계 구조에 의존했는데, 이는 외지동포가 그들이 내지동포를 대상화하고 그들의 고통을 수단화한다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했다. 내지한인을 한반도라는 감옥에 갇힌 수인, 일제의 폭정에 시달리는 노예로 바라보는 외지한인의 시각은 (사심 없이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진정성’과는 별개로) 스스로를 내지한인보다 우월한, “이 세상에 제일로 귀하고 또 좋은” 자유를 누리는 존재, 내지동포를 구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이 있는 존재로 위치시킨다. 여기서 경제적 궁핍의 문제는 부차화(“금전이 있으며 없는 것은 물론하고”¹⁰⁷⁾)되는데, 결과적으로 외지한인은 내지한인의 결핍을 강조하여 자신의 삶을 실제보다 나아 보이게 만든 것인지 모른다. 『권업』은 “한국청년은 하루라도 내지에 있기를 송곳방석에 앉은 것 같이”¹⁰⁸⁾ 여긴다고 하였으나 그런 경우보다 식민 권력의 요구에

103) 이만영, 앞의 논문, 109~111면 참조.

104) 손유경, 앞의 책, 191면, “타인의 고통에 대한 민감성은 그날그날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며, 생존을 이어가는 것만도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타인의 불행에 대해 완전히 무감해질 수 있다.”

105) 王生, 「기서-사회발달론(社會發達論)」, 『권업』 49, 1913.3.23.

106) 손유경, 앞의 책, 44면.

107) 「논설-신년유감」, 『정교보』 8, 1914.1.1.

108) 故郷口, 「논설-고향생각을」, 『권업』 102, 1914.3.15.

적당히 따르면서 “뜻밖에 견딜만한 식민지”¹⁰⁹⁾를 살아간 경우가 보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동정 담론의 한계를 간파하고 이광수는 『정교보』에서 담론이 재현하지 못한 개인의 섬세한 내면을 조명하고 특권화된 외지한인의 지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 또한 내지한인을 가련한 존재로 연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았으나 그들을 외부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수동적인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았다. 이들이 동정받아야 할 까닭은 육체의 부자유와 학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겉으로 표출할 수 없는 가슴 속의 울분 때문이었다. 이들은 소위 애국자연하는 지사들이 “왜놈의 등살에 해외로 도망”한 자리에 남아 외로움을 느끼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상실해간다. 그러다 “평생에 소원이 금줄 번쩍 칼 떨렁 왜놈의 종이 되어 불쌍한 동포에게 <고라 이놈아> 한마디 불러 봄이” 되어버린 청년들은 겨우 꿈꾸던 헌병보조원, 교원이 되어서도 일인은 물론 한인의 멸시를 받으며 남과 공유할 수 없는 내면의 고통을 키워간다.

철없는 어린 학도들도 우리사람 교원은 선생으로 여기지도 아니하여 왜인의 말이면 두려워 하면서도 우리 교원이 무어라 하면 <흥> 코웃음이라. 전국 이백 남은 보통 학교에 **이천여명 교원과 팔천여명 군사 헌병보조원과 이삼천명 기타 관리 중에** 아주 배알 빠진 놈을 제쳐놓고야 애국심은 있는지 물으거니와 **누가 가슴에 뜨거운 배일열 없을 자이리오**마는¹¹⁰⁾

이광수는 겉으론 순종하고 웃으면서도 속으론 분노하고 울고 있는 내지한인의 입체적인 내면에 주목한다. 그들의 외적인 ‘협력’과 ‘친일’을 단죄하기보다 꺼리는 일을 하면서 현실을 견디는 내면의 비극에 공감하는 것이다. 이는 이광수 직전의 『정교보』가 일본인 상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는 리태열의 실명을 공개하며 그를 “썩은 정신과 썩은 뱀을 가진 자”¹¹¹⁾로 맹비난했던 태도와 대비된다. 이광수의 눈에는 “본국 동포는 다 왜놈으로 치고”¹¹²⁾ 해외로 나와 쓸데없이 정력을 낭비하는 망명지사가

109) 권보드래, 앞의 2019 책, 163면.

110) 「본국소문-청년들은 목자 잃은 양-굴레 벗은 망아지」, 『정교보』 9, 1914.3.1.

111) 「잡보-만주리 정거장 동포의 현상」, 『정교보』 8, 1914.1.1.

112) 「바른소리」, 『정교보』 10, 1914.5.1.

말로 외려 지탄받아야 할 도망자에 불과하다. “이탈리 애국자들은 그 몸이 아주 위험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몸소 솟구이가 되어 본국으로 두루 다니며 주의를 전도하고 인심을 고동하지 아니하였”¹¹³⁾는가 되물으며 그는 그간 망명지사들 간에 당연시되어 온 외지/내지의 위계를 뒤집는다.

해외에 있어서 눈을 부르대면서 경국정세의 대정치가 행세하는 이보다 내지에 꼭 들어박혀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면서도 코 흘리는 어린 아기들을 대하여 <가자거겨>를 가르치는 이가 진정한 애국자가 아닐까. …… 무어니 무어니 하여도 정말 나라를 찾고 세울 이는 그래도 본국 동포리라.¹¹⁴⁾

이렇게 동정 담론의 틈을 예리하게 파고든 이광수의 글은 내지한인의 복잡한 감정을 재현하며 그들에게 주체적인 지위를 회복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물론 내지한인을 힘없는 노예/잠재적 친일파로 바라보는 시각만큼이나 외지한인을 명예욕에 사로잡힌 위선자/비겁한 도망자로 간주하는 시각도 균형감각이 결여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바로 그런 차이 때문에 외지의 극단적인 시선을 교정해줄 거울상¹¹⁵⁾으로 이광수의 글이 필요한 것이기도 했다.

2. 동정의 원심력과 그 한계: 개방 또는 해체되는 민족의식

동정이 진정 타자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세계와의 소통을 추구하는 일¹¹⁶⁾이라면,

113) 「바른소리-서간도 사람의 동요에」, 『정교보』 9, 1914.3.1. “솟구이”는 이탈리아 통일운동을 이끈 비밀결사 ‘카르보나리(Carbonari)’의 일원을 일컫는다. 솟을 구워 파는 사람으로 신분을 위장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 “카르보나리”, 네이버 기관 단체사전: 종합,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45825&cid=43124&categoryId=43124>(검색일: 2021.2.28.).

114) 정교보 10호 7~8면, 「바른 소리」.

115) 외지와 내지는 각기 서로를 동정의 대상으로 전유하는 짝패처럼 보였다. 유감스럽게도 1910년대 초, 재러한인을 동정하는 내지동포의 입장을 담은 글은 찾지 못했으나 간도 동포의 고된 삶을 동정한 글들이 『매일신보』에 실렸음을 참고하면, 그와 같이 불리한 조건 속에 터전을 마련해야 했던 재러한인에 대한 시각도 비슷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간도는 차생 지옥」, 『매일신보』, 1913.8.14).

116) 각주 86, ‘동정’ 개념의 정의 참고.

동정은 주체가 대상을 포획하는 수직의 운동이 아니라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수평적 상호작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동정을 ‘베푸는’ 주체는 타자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에서 언제든 자신의 정체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동정 담론들에서는 대상을 민족의 일원으로 끌어당기는 강력한 구심력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구심력은 달리 말하면 타자의 주체적인 목소리는 배제하고 억압하는 힘이기도 했다. 그러나 재러매체에는 동정이 근본적으로 공동체의 수용력을 확대하는 과정임을, 혹은 ‘내’ 안의 타자성을 발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사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사들은 국수 정신을 강조했던 『권업』보다 타문화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여준 『정교보』에서 많이 발견된다. 러시아정교와 러시아어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었던 『권업』은 “참된 애정은 가까운 데로부터 먼저 나는 것은 천리”¹¹⁷⁾라는 태도를 일관되게 고수했다. 『권업』은 사해동포주의의 이념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 실현 가능성을 의심했고,¹¹⁸⁾ 인류애를 강조하는 순간에도 한인들이 자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말 것이 당부했다.¹¹⁹⁾

『정교보』 또한 한인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러시아에 동화되는 상황을 우려¹²⁰⁾했지만 러인을 대하는 태도는 한결 유연했다. 이는 우선 『정교보』가 발간된 자바이칼 주의 한인이 매우 적었고 생활 형편도 열악했다는 사실에서 그 원인을

117) 友海生, 「기서-국민적 생애(國民的生涯)」, 『권업』 53, 1913.4.20.

118) 해항과객, 「기서-중국과 빨간풍운에 대하여」, 『권업』 71, 1913.8.24, “사해가 이 형제오 세계가 다 동포라 하는 말은 오늘날 二十세기에는 다만 이상으로 생각할 뿐이오 실제에는 볼 수 없는 것이라 …… 교통이 서로 편의하여질수록 종족의 분별은 더욱 심하여 각각 제 동족을 위하여 생존을 경쟁함이 자못 극도에 달하였도다.”

119) 王人, 「논설-예수 부활절」, 『권업』 107, 1914.4.26, “내 한 몸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을 다시 살릴 생각을 가지며 우리 부여 민족은 어디 가든지 제 나라 님을 잃지 말지니”. 『권업』이 배타적 민족성을 드러낸 것은 민족의식이 인류애로 확장됐을 때 한인들이 “러시아를 마치 그들의 조국인 것처럼 바라보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당시 아무르 주 한인들의 실태를 보고하는 한 러시아 관리의 문서에 따르면 한인들은 벌써 보수 높은 직업과 완전한 공민의 권리가 보장된다면 조국과 민족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태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강성희 역, 앞의 책, 75~76면 참조).

120) 倫口, 「우리사람은 우리사람이여」, 『정교보』 5, 1912.8.1, “비록 아라사에 입적하였을지언정 우리 사람은 외연히 대한사람이오. 아인이 아니며 비록 청국에 귀화하였을지언정 우리조국은 의연히 대한이오.”

찾을 수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1910년 당시 연해주의 인구가 51,554명이었던 데 비해, 자바이칼 주의 한인은 516명에 불과했고¹²¹⁾ 이들 중에 가장 부유한 사람조차 감자 농사를 지어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¹²²⁾ 때문에 한인들은 생계를 위해 러인이 소유한 상점과 토지, 광산 등에서 일하는 등 외부세계와 접촉할 기회가 잦았을 것이며, 대다수가 궁핍한 생활을 했다는 점은 한인에 대한 러인의 동정을 고조시키는 데 일조했을 것이다.

이렇게 인종적·문화적 혼종성이 두드러졌을 이 지역에는 한인 남성과 결혼해 가정을 꾸린 러시아 여성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은 만리타향에서 “류리포박하여 다니는” 한인들의 고심을 생각하며 “가궁한 눈물”을 흘렸고 『정교보』는 이에 큰 인상을 받은 듯이 보인다.¹²³⁾ 마찬가지로 한인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기댈 곳 없어 “모욕을 당할 때마다 측은한 생각”이 그치질 않았다는 정교회 부주교 에프렘의 동정 어린 연설도 『정교보』는 빼놓지 않고 기록했다.¹²⁴⁾

인종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동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시나브로 한인들로 하여금 타민족에 대한 적대심을 줄이고 포용력을 키우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교보』 9호의 「불쌍한 우리 아기들」과 같은 글도 탄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글은 민족 외부의 완전한 타자라고 할 순 없지만, 러인(한인)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한인과 러인 양편 모두로부터 외면받는 혼혈아들에 대한 뜨거운 동정을 표한 글이다.

121) И. Баби́чев, *Участие китай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трудящихся в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е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Ташкент, 1959), с.18-19.(남정우, 『동방정교회 선교역사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7, 163면, 각주 308에서 재인용) 한편 자바이칼 주의 한인 거주자를 이보다 적게 잡는(381명) 통계도 있다. В. Д. Песоцкий, указ. соч., Приложение VII, с.155(이병조, 『러시아 프리마르 한인사회와 정교회 선교활동-19세기 중엽~20세기 초 극동 한인들의 이야기』, 경인문화사, 2016, 168면에서 재인용).

122) 이광수, 앞의 책, 188면 참조.

123) 「기서-우름삼부인」·「잡보-부인들이 열심」·「잡보-군자의 좋은 짝이로다」, 『정교보』 2, 1912. 2.1, 『정교보』 2호는 “우리동포”만큼이나 “우리”를 아끼는 “아라사녀자”(송치홍, 리병률, 박병권, 문운함의 부인)들이 『정교보』 발간 소식을 접하고 소정의 기부를 하였음에 감사를 표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실어 주었다.

124) 「기서-부주교의 연설」, 『정교보』 6, 1912.9.1.

부모를 여의고 의지할 곳 없어 길가에서 우짚는 어여쁜 우리 아기들!
 내 일찍 열 남은 살 된 어여쁜 처녀를 만나 <네 아라사 사람이지>하였다니 크
 고 파리우리한 눈에 눈물을 두르며 <니엣드net 야R 꼬레이췌(아니오 나는 한
 인이오)> <그러면 왜 한국말을 모르냐> <꼬또 메나 우치우(누가 나를 가르쳤
 소?)> 이 애는 아버지가 죽고 그 어머니 아라사 부인은 아라사 사람에게 개가
 를 갓건마는 그리로 쫓아가지 아니하고 홀로 우리 사람을 따르는 애처로운 폴
 <아자씨 나를 다려다 길너주시오>하고 매달리며 우는 양을 보았노라.¹²⁵⁾

혼혈아는 민족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민족의 ‘틈’이라는 점에서 ‘타자’의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교보』는 그간 재러한인매체에서 한
 번도 재현된 적 없는 혼혈아를 민족 담론 내부로 소환하며 민족의 틈을 사유한다.
 비록 결국에 가서는 혼혈아를 “본국으로 다려다가 교회 학교에서 사람되도록 가르”
 처야 할 “우리 동포의 혈육”으로 호명하며 ‘벌어진 틈’을 곧 봉합해버리는 한계가
 있으나, 동정을 통해 민족의 외연을 언어·혈통적 순수성 바깥으로 확장시킨 것은
 분명하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민족 외부의 타자를 동정하는 주체가 탄생하게 된다.
 『정교보』 3호 「세계소문」에는 재미한인의 놀라운 전도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제시
 돼 있다.

미국필라델피아 피스버에 있는 한 부모는 절묘하고 민첩하고 온유한 그 딸
 이 그 부모에게 말하기를 그가 아프리카에 전도가기를 원한다한대 그 부모는
 예수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라 크게 기뻐하며 가라대 우리가 그 일을 매우
 기뻐하고 식구가 몇 날 기도한 후에 그 딸을 아프리카로 보내되 동리 친
 구들이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와서 말하여 그의 그 딸을 아프리카 같은 곳에
 보내지 말라한대 그 부모 대답하여 왈 우리 주께서 그의 제일 좋은 것으로써
 우리에게 주었으니 우리가 우리의 제일 좋은 물건으로 바칠지라도 주를 특별
 히 사랑하는 것이 못된다 하였다더라.¹²⁶⁾

125) 「우리주장-불쌍한 우리 아기들」, 『정교보』 9, 1914.3.1.

126) 「세계소문-제일 좋은 물건으로 하느님께 바침」, 『정교보』 3, 1912.5.1.

이 기사는 피츠버그의 한 신실한 기독교 한인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한다. 아프리카에 선교활동을 가겠다는 딸의 결심에 부모는 “크게 기뻐하며” 외국전도소에 몸소 찾아가 自費로 딸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부모를 만류하지만 부모의 태도는 흔들림 없이 굳건하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듯 “우리”도 “우리”보다 불쌍한 ‘약자’에게 사랑하는 딸을 기꺼이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¹²⁷⁾ 이러한 태도는 전호(2호)의 논설 「모든 미천한 자의 예물로 오신 구주의 한 일」의 주제와 조용하는 것이며 『정교보』가 「취지서」에서 표방한 동포 개념(“하나님을 공경하며 한 예수를 믿는 교도는 다 동포 형제라 어느 반구 사람이던지 어느 나라 사람”¹²⁸⁾)이 구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를 향해 열린 동정의 원심력 안에는 두 가지 부정적인 가능성이 존재했다. 첫째, 동정이 주체-대상의 우열을 유지하는 수직적 감정에 머무를 경우, 이는 ‘미개한 토인’에 대한 한인의 우월의식을 반증하는 예가 될 수 있었다. 내지동포에 대한 연민과 마찬가지로 상대의 심중은 고려하지 않은 채 상대를 구원되어야 할 대상으로 단정하는 것은 왜곡된 공명심의 표현이거나 민족적 자존을 세우려는 수단화에 지나지 않게 된다.

둘째, 종교적 대의와 결합한 인류적 이상의 추구가 민족(성)의 보존보다 우선시되는 ‘본말전도’가 일어날 수 있었다. 『정교보』는 종교의 민족적 전유를 통해 양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으나 영혼(내세)의 구원을 꿈꾸는 ‘종교’와 현실의 구원을 지향하는 ‘민족’은 근본적으로 그 목적이 서로 상충하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위 사례 또한 민족(구체)보다 종교 혹은 그와 결합한 인류애적 가치(추상)에 매혹된 주체들의 선택을 보여준다 하겠다. 어떻게 보면 딸과 부모는 인류를 위한 희생을 통해 민족의 자기 존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¹²⁹⁾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종교

127) 여기서 노령의 사례가 아니라 미주의 사례가 제시된 점, 사건을 전하는 기자가 주관적인 논평을 남기지 않은 점 등은 한인 부모에 대한 『정교보』의 입장이 긍정적인지, 비판적인지 모호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는 어느 아프리카인의 경우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을지 모르는 재러한인에게 이 사례는 허황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리 친구들”의 놀람과 만류라는 상식적 태도와 대비를 이루는 부모의 당당함의 근거가 성경의 ‘말씀’이라는 점, 그리고 이를 전달하는 서술자의 태도에 아이러니가 섞여 있지 않다는 점은 기사를 충분히 액면 그대로 읽을 수 있게 한다.

128) 「취지서」, 『정교보』 1, 1912.1.2.

129) 권보드래, 앞의 2009 논문, 237면 참조.

자체가 이들의 인류애를 촉발시킨 원동력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V. 신세계에 대한 염원

“강토, 주권, 군주, 정부” 등을 의미하는 “형식상 국가”가 망하더라도 “그 민족의 독립할 정신, 자유로운 정신, 생존할 정신, 국권을 보전할 정신”을 의미하는 “정신상 국가”가 존재한다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았다고 본 망명지사¹³⁰⁾들에게 진화론은 국망을 불가역적인 현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설명법일 수 없다. 1910년대 초, 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던 망명지사들은 『권업신문』과 『대한인정교보』의 간행을 통해 민족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 매체들은 독립을 한없이 延期하는 점진적인 실력양성론을 회의하며 완벽한 ‘준비’가 없어도 승리를 희망할 수 있게 하는 ‘정신’의 비약을 감수한다. 이 시기 새롭게 (재)등장한 영웅 담론과 인성진화론, 동정 담론은 문명론적 위계와 패권주의를 비판하며 반진화론적인 사유와 감성을 드러냈다. 이 담론들의 성격을 요약해보면 첫째, 영웅 담론은 그간 서구 편향적인 영웅에 의해 조명되지 못했던 자국/동양의 영웅을 부각시키고 동시대적 인물을 ‘영웅화’함으로써 한민족이 (신해혁명과 발칸혁명에 버금가는) 새로운 ‘혁명’의 주체가 되는 순간을 상상했다. 둘째, 진화의 조건이 되는 ‘실력’의 자리에 ‘도덕’을 기입한 인성진화론은 국망의 원인을 도덕(신앙심)의 부족으로 진단해 국권 회복의 희망을 재생시키고, 도덕을 결여한 일제를 ‘화병에 꽃힌 꽃’에 비유하여 식민 지배를 한시적인 것으로 치부함으로써 힘의 우열을 뒤집을 수 있었다. 끝으로 재러매체에서 생산된 동정 담론은 핍박받는 ‘내지동포’의 고통을 그리며 민족의 구심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동포’의 개념을 확장해 민족 외부의 타자들을 포용하는 원심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한계 또한 없지 않았다. ‘정신’을 절대화하고 ‘실력’을 부차화하는 논리는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호처럼 반복될 경우 패배자의 정신 승리에 지나

130) 신채호의 입장이다. 신채호, 『대한매일신보』 1909.4.29. 논설 『精神上 國家』. 박찬승, 『민족주의 시대-일제하의 한국 민족주의』, 경인문화사, 2007, 317면에서 재인용.

지 않게 되며, 위계를 세우는 기준만 수정할 뿐 위계의 구조는 용인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한편 한인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일환으로서 개진된 동정 담론은 동정의 대상을 타자화하며 시혜자의 우월감을 충족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었다. 이처럼 재러 민족주의 담론에는 반진화론적인 동시에 반진화론적인 양면이 공존했다.

『권업』과 『정교보』는 1914년 7월 세계대전의 발발을 전후해 폐간되고 만다. 일본과 동맹을 맺은 러시아가 항일운동을 금지해달라는 일제의 요구에 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권업회가 강제 해산되고 두 매체와 관련한 인사들이 체포, 추방되면서 독립운동은 급작스러운 침체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¹³¹⁾ 그러나 러 당국에 의해 잡지가 폐간되고 운동이 탄압받기 직전까지, 재러한인들은 세계대전의 추이를 관망하며 불안과 두려움에 떨기보다 ‘새로운 세계’¹³²⁾가 열릴 것이란 모종의 기대와 흥분을 내비치고 있었다. 막 시작된 세계대전에 대한 『권업』의 평가가 “국제도덕”을 명분으로 한 “야심적 전쟁”¹³³⁾과 “인류의 문명을 발전케하며 국민의 애국심을 발휘케”¹³⁴⁾ 할 기회 사이에서 진동하고 있었으나, 전쟁 뒤를 상상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한 것은 인상적이다.

이제부터는 이 땅에 강하다 약하다 하는 말은 옛말이 되고 이 심판이 지난 뒤에는 새 세상에 이 사실이 발현될 것은 더 의심할 바이 없도다.¹³⁵⁾

투고일: 2021.04.16

심사일: 2021.06.11

게재확정일: 2021.06.14

131) 박환, 앞의 책, 184~185·198면; 윤병석, 앞의 책, 185~186면 참조.

132) 이 세계에 대한 상상 속에는, 분명 세계대전을 기회로 독립전쟁에 성공했을 때 획득하고 맞이할 조선의 주권과 민족적 해방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세계상에 대한 요구도 깃들여 있었다.

133) 「구주대전쟁의 일반형세(歐洲大戰爭의 一般形勢)」, 『권업』 124, 1914.8.16.

134) 「논설-전쟁과 평화(戰爭과 平和)」, 『권업』 124, 1914.8.16.

135) 『권업』 126, 1914.8.29.(인쇄 품질, 영인 등의 문제로 기사제목은 판독 불가)

참고문헌

『권업신문』, 『대한인정교보』

강성희 역, 『러시아문서 번역집. X IX 러시아국립 극동역사문서보관소(Р Г И А Д В): 근대한
러관계연구』, 선인 2014, 54 · 75~76면

이광수, 『나/나의 고백』, 우신사, 1985, 166~190면

“일본정교회”,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D%BC%EB%B3%B8_%EC%A0%95%EA%B5%90%ED%9A%8C)

“카르보나리”, 네이버 기관 단체사전: 종합,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45825&cid=43124&categoryId=43124>)

권보드래, 『1910년대, 풍문의 시대를 읽다』, 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_____,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증보판)』, 소명출판, 2012

_____, 『3월1일의 밤』, 돌베개, 2019

권보드래 외 저, 『『소년』과 『청춘』의 창-잡지를 통해 본 근대 초기의 일상성』,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7

박찬승, 『민족주의 시대-일제하의 한국 민족주의』, 경인문화사, 2007

박 환, 『러시아지역 한인언론과 민족운동』, 경인문화사, 2008

손유경, 『고통과 동정』, 역사비평사, 2008

윤병석, 『국외 항일운동 I -만주 · 러시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최기영, 『식민지기 민족지성과 문화운동』, 한울아카데미, 2003

권보드래, 「신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의 의미-〈금수회의록〉, 〈경세중〉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
학연구』 6, 한국현대문화회, 1998

_____, 「진화론의 갱생, 인류의 탄생-1910년대의 인식론적 전환과 3 · 1 운동」, 『대동문화
연구』 66, 2009

김성연, 『한국 근대 문학과 同情의 계보-이광수에서 『창조』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2

김주현, 「『중국혁명사략』 저자 규명 및 창작 의의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8, 독립기념
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7

노연숙,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기독교적 상상력」, 『민족문학사연구』 31, 민족문학사연구
소, 2006

민병진, 「1910년대 일제강점기 민족운동 고찰-춘원의 상하이 · 블라디보스토크 · 플린 · 치타에
서의 활동」, 『춘원연구학보』 15, 춘원연구학회, 2019

박걸순, 「沿海州 韓人社會의 갈등과 鄭淳萬의 피살」,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4, 독립기념관 한

국독립운동연구소, 2009

- 박찬승, 「기획2: 사회진화론 수용의 비교사적 검토-한말 일제시기 사회진화론의 성격과 영향」, 『역사비평』 32, 역사비평사, 1996
- _____, 「일제 지배하 한국 민족주의의 형성과 분화」,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0
- 반병률, 「일제초기 독립운동노선논쟁-급진론과 완진론: 초기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5,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6
- 송명진, 「역사·전기소설과 디아스포라」, 『비교한국학』 19(3),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
- 우수진, 「갈등회 소인극 연구-사실성과 동정의 스펙타클」, 『한국극예술연구』 35, 한국극예술학회, 2012
- 유봉희, 「1910년대 한국근대소설이 보여준 사회진화론과 근대 극복의지의 한 양상, 양건식의 사상과 문학세계(1)」, 『한국학 연구』 42,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6
- 이기순, 「오산 이강의 생애와 독립운동」, 『역사와 실학』 66, 역사실학회, 2018
- 이만영, 「한국 초기 근대소설과 진화론-1910~1920년대 초 ‘진화’ 개념의 전유 양상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8
- 이명화, 「1910년대 재러한인사회와 대한민국민회의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1997
- 이인화, 「1910년 이후 한말 사회진화론의 변용과 극복 양상-안중근, 박은식, 안창호, 신채호의 사상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74, 한국동서철학회, 2014
- 최주한, 「이광수와 『대한인정교보』 9, 10, 11호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8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4

The early 1910s, the Succession and Refraction of Nationalism in the Korean Press in Russia — Focusing on Dehanin Jeonggyobo and Gwoneop Shinmun

Kim, You-dong

This study investigates how Gwoneop Shinmun and Dehanin Jeonggyobo inherited and transformed the nationalism in the 1900s. The nationalism of the Korean community was apparently influenced by 1900s' nationalism in the sense of individuals being interpellated as atoms that served the interests of the nation-state. However, in opposition to theory for Fostering Capacity, which rapidly lost its purchase on people's thinking after the loss of Korean sovereignty, there was a new demand for a nationalistic framework, and in response, the press prompted 'mentalistic' path through which people could dream of achieving independence without sufficient 'preparation'. The thought and sensibility that focused on the potential of 'mind' instead of 'capability' were largely revealed through three discourses: hero discourse, personality evolution theory, and sympathy discourse. These discourses connoted anti-(or quasi-)evolutionary thinking which doubted the hierarchies of civilization and the law of the jungle, and sought to formulate a new and alternative worldview. Until now, Gwoneop and Jeonggyobo have been described as anti-Japanese outlets which expressed a strong national consciousness, but the various aspects of their articles have received little attention.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others in that it analyzed the reason why the committed independence movement was able to sustain itself despite the fall of the Korean Empire. In addition, it helps to lay the groundwork for the Kareisky culture and literature studies which deal with the 'existence' of the Koreans, given that it explored fissures in national consciousness that cannot be assimilated into a concept of nationalism.

Key Words : 1910s, nationalism, Gwoneop Shinmun and Dehanin Jeonggyobo, (social) evolution, spiritualism, hero discourse, sympathy